

VER.5.1015

터 널

제작	어나더썬데이, 하이스토리
	비에이 엔터테인먼트
투자/배급	쇼박스
각본/감독	김성훈

S#1. 빵집. 낮

하얀 설원이 넓게 펼쳐져 있다.. 싶더니, 케이크 위의 모습이다.

하얀 케이크 위에 살포시 얹힌 장식물, ‘해피버스데이 투유..’

케이크를 고르던 정수, 핸드폰이 울리자 중요한 전화인 듯 서둘러 받는다.

이정수 예, 사장님. 하도대리점 이정습니다.

(소리) 정수씨, 어젠 미안했어요, 내가 웬만해서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아닌데, 집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이정수 아유, 아닙니다. 사장님. 일은 잘 해결 되셨어요?

(소리) 아 예, 잘 됐습니다.

이정수 다행이네요. (조심스레) 그럼 어떻게, 제가 월요일에 찾아뵈면 될까요?

(소리) (뜸을 들인다) 얼마라 그랬죠? 내가 견적서를 두고 와서...

이정수 아 예, 사장님, 잠시 만요.

정수, 핸드폰을 목에 끼고 서류가방에서 파일철을 꺼내려다, 후드득- 가방이 쏟아진다. 바닥에 흩뿌려진 서류들.

시끄럽게 재잘거리던 아이가 밟고 지나간다. 못 봤는지, 사과도 않는 아이엄마.

에이.. 발자국이 찍힌 서류를 챙기는 정수. 내용을 살핀다.

이정수 어.. 맞춤형상품으로 대당 이천 이백 오십오로 해서, 총 9대니까..

합이 이억 이천.. 아니 이억 이백 구십 오만원입니다.

(소리) 오만 원까지 넣으셨네..

이정수 아.. 이미 많이 뺀 거라서 그랬는데.. 제가 그건 책임지고 지우겠습니다.

(웬으로 그어버리고는) 더 깔끔해진 거 같습니다.

상대가 말이 없다. 조바심이 나는 정수.

이정수 사장님, 차종을 참 잘 고르셨습니다. 요게 잔고장도 없고 실내공간도

전폭 1860에 축거 2805미리면 동급최대라 렌터카엔 최적이거든요.

..월요일에 사무실로 찾아뵈을까요?

(소리) ..일단 주말 지내고, 다음 주에 다시 연락합시다.

이정수 (실망)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월요일 오전에 연락드리고 찾아뵈겠습니다.

(뚝 끊어지는 전화와 물리며) 좋은 주말 되십시오.

에이.. 많이 아쉬워하는 정수, 떨어진 서류들을 정리한다.

TV 뉴스엔, 아까부터 굴뚝에서 고공농성중인 소식이 나오고 있다.

이정수 (피곤하다) ..새끼들, 적당히 좀 하지.

서류를 챙겨, 케이크를 다시 고르는 정수.

이정수 생크림 말고 초코 없나요?
빵집주인 여기 있는 게 답니다.
이정수 생크림 별론데.. 저거 주세요. 아니 그거 말고 옆에 꺼, 작은 거.

S#2. 주유소. 차안. 낮

정수, 주유 중에 구석진 쓰레기통 앞에서 담배를 피며 차내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
어설피고 느릿느릿한 동작으로 주유기를 꺼내는 할아버지 주유원.
차로 돌아오던 정수, 주유구 뚜껑을 찾아 헤매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답답하다.

주유원 (뒤늦게 달고는) 한 가득에 12만 7천원 들어갔습니다.
이정수 (놀라) 어? 저 3만원어치만 넣어 달라 했는데요?
주유원 ...?

머뭇머뭇, 당황해하는 할아버지 주유원.
주유소 사장이 짜증난 얼굴로 다가온다.

주유소사장 죄송합니다. 이 할아버지가 귀가 좀 안 들려서요.
 (다그친다) 계속 일하시려면 보청기를 좀 하시던가 하세요, 갑갑하게..
 (태도가 딱딱치 않자) 할아버지! 지금 제 말 듣고 있으세요?! 아, 진짜...

젊은 사장에게 혼나는 노인이 안쓰럽다.

이정수 됐어요. 어차피 내가 쓸 거니까.. 그냥 계산해주세요.

카드 내미는 정수.
출발하려는데.. 잠시만 기다리라는 시늉하며
생수 두병을 건네는 할아버지, 그 모습도 느릿느릿.
부우웅- 떠나면, 백미러에 굵든 할아버지 뒷모습이 멀어진다.

S#3. 지방 국도. 차안. 낮

한적한 도로를 달리는 정수차. 아내 세현과 통화중이다.

이정수 어, 원래 어제 계약하기로 한 건데.. 탄 핑계대면서 질질 끄네.
 쫓.. 뭐, 탄 데서 비딩 들어온 거 같애. (아쉬움) 계약했으면 당신,
 뺑 하나 해줄라 했는데.. 다음으로 패스.
세현(소리) 쓸데없는데다 돈 쓸 생각 말고, 수진이 생일선물이나 어떻게 해봐.

강아지 사줘, 말아.

이정수 콧구녕만한 집에 개를 어떻게 키우냐. 난 털 날리는 것들 싫어.

세현(소리) 당신도 털 많이 빠지거든.

이정수 (이런..) 그래도 내건 날리진 않잖아. (룸미리에 머릴 한번 비춰본다.)

세현(소리) (맨날 듣는 그저 그런 농담인 듯, 무시) 그럼 어떻게 해?

이정수 수진이 또봇 좋아하잖아. 걀 털도 없고 좋네.

세현(소리) 어린이날에도 또봇 사줬거든, 당신이.

이정수 아, 그랬나? 그럼 카봇?

세현(소리) (체념) ..몇 시쯤 도착해?

이정수 아, 나 카센타 좀 들렀다 갈게.
(경적을 눌러봐도 반응이 없다) 크락션 완전 나갔어.

세현(소리) 그래서.. 언제 온다고.

이정수 (시계를 힐끔 보고는) ..5시 59분까지 도착.. 케익은 내가 샀으니까..

통화중 대기음이 울린다. 렌터카사장이다.

이정수 어? 렌터카 사장, 전화 왔다. 나중에 통화해.
(받는다) 네, 사장님. 기아자동차 하도대리점 이정섭니다.

렌터카(소리) 쉬는데 전화해서 미안해요.

이정수 아닙니다, 운전 중이었습니다. 통화 가능합니다.

렌터카(소리) 아.. 내가 다음 주에 해외 나갈 일이 생겨서 그 전에 계약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정수씨 그간에 정성도 있고 해서 정수씨 물건 사주고 싶은데요.. 근데, 이게 돈이 좀 모자라서...

귀 쫓긋.. 무슨 말을 할까..

‘전방에 터널입니다. 안전운전하세요.’ 내비게이션의 목소리가 들린다.

렌터카(소리) 총 8대 구입하는 걸로 하고, 유아용 카시트 3개만 좀 끼워줄 순 없나요?
요즘엔 그거 많이 찾더라고. 디럭스까진 필요 없고, 스텐다드형이면 되는데..

시원한 조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잡아야한다.

통화하는 사이, 터널로 들어서는 정수차.

이정수 사장님, 제 모토가 인생 3막이잖습니까. 막 퍼주고, 막 끼우고, 막 디씨해주는.. 당연히 드리죠. 심지어 아기들 안전을 위한 일인데...

렌터카(소리) 시원하시네. 월요일에 계약합시다.

이정수 감사합니다, 사장님.

렌터카(소리) 그럼 총액이 어떻게 되나요?

이정수 사장님, 제가 인문계출신이라 셈이 잘 안돼서요, 터널 지나서 차세우고 곧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렌터카(소리) 그럼시다.

이정수 (들뜬 목소리) 뱀, 잠시 후 뱀겠습니까.

전화를 끊는 정수, 오호!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아내에게.. 아내 번호를 누르려는데...

순간, 팡! 엄청난 굉음이 터널 안에 퍼진다.

메아리치는 단발성 굉음...

화들짝 놀란 정수, 타이어가 터졌나 싶어.. 백미러를 보면, 아니다.

앞에 달리는 차에서 나는 것도 아닌 거 같고..

가우똥 하는데.. 퍽! 터널 내 전등이 일제히 꺼진다.

순식간에 암흑이 되는 터널.

이정수 (당황) 어?!

황급히 상향등을 켜는 정수. 팻!

천천히 서행하던 앞 차와 충돌직전이다.

이정수 어어..?!

끼이익... 브레이크. 간신히 충돌을 피하고 차간 거리를 띄우는 정수.

이정수 (휴..) 뭐야..

순간, 바짝 긴장했던 정수..

깜깜한 터널 안을 속도를 줄여 조심스레 달리는데...

터널 내 전등들이 부르르.. 깜박거리더니 일제히 불이 들어온다.

다시 환해진 터널 안. 정상으로 돌아 온 건가 싶은데...

뒤편에서 들리는 쿵쿵- 소리.

힐끗 본 룸미러에...

터널 천정에 달린 전등들이 도미노처럼 떨어지는 모습이 보인다.

이정수 (뿔지) ...?

자세히 보면... ... 터널이 무너지고 있다! 쿵! 쿵!

이정수 !!!!

순식간에 차량 바로 뒤까지 쫓아온 붕괴상황.

쩍쩍 갈라지는 금이 정수차를 따라붙더니... 선루프 위를 지나 넘어간다.

정수, 천정과 벽을 보는데...

과광! 정수차 위로 커다란 콘크리트 더미가 떨어진다. 순간 암전.

터 널

S#4. 터널 안. 정수차. 낮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쿨럭,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서 들리는 열은 기침소리.

적막이 이어지더니.. 다시 한 번 쿨럭 기침소리가 난다.

정수, 핸들에 처박혀 있는 머리를 부여잡고 일어난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매캐한 연기와 분진 속에서 멍하니 거친 호흡만 내뿜는 정수.

하아.. 하아.. 하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천천히 고개를 돌리는데,

이정수 악!

짧은 비명. 뭔가 날카로운 것에 얼굴이 찢렸다.

깨진 유리인가..? 전혀 보이지 않고..

뭐지..? 조심스레 만져보면, 뽀족한 것들이 손바닥을 찌른다.

얼른 손을 떼는 정수,

이정수 (두려움 가득) 헉.. 헉..

딸깍, 딸깍.. 헤드라이트 레버를 눌러보지만.. 켜지지 않는다.

더듬더듬.. 딸깍.. 머리 위 노란 실내등이 켜진다. 그제야 보이기 시작하는 내부 상황.

정수, 밝은 불빛에 눈을 찡그리는데...

눈 바로 앞, 날카로운 철선이 삐죽삐죽 튀어나온 콘크리트 덩어리가 얼굴을 위협하고 있다.

헉! 조금만 옆으로 움직였더라면, 철선이 눈에 파고들 뻔했다.

헉, 헉.. 눈동자만을 굴리는 정수.

주변이 온통 무너진 콘크리트 덩어리로 가득하다.

터널 천정에 달려있던 커다란 환풍기가 차량 앞 유리를 뚫고 운전대까지 들어와 있고

간신히 몸 하나 공간만 남은 운전석과 뒷좌석 일부 공간을 제외하고는

사방이 무너져 내린 구조물이다.

꿈쩍없이 찡그려진 차안에 갇힌 정수.

다친 데 없나 몸 여기저지를 확인하는데...

그 순간, 끼이익- 차량 지붕이 무게를 못 이기고 틀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조금씩 내려앉는 지붕. 끼이익-

정수. 반사적으로 몸을 낮춘다.

제발... 가쁜 호흡을 참아가며 숨죽여 천장을 지켜보는데..

핑! 이번엔 보조석 차창을 박살내며 돌덩이가 옆에서 밀려든다.
헉! 피하려다 철선에 또다시 얼굴이 찢리는 정수.

이정수 악!

비명과 함께.. 썩! 실내등이 꺼지고 차안은 또다시 암흑...
와르르- 계속해서 밀려들어오는 돌과 흙더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정수.
소리가 잦아들더니, 더 이상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는 듯하다.
바로 옆에 까지 밀려온 돌덩이를 슬쩍 밀어내는 정수, 쿵- 기침을 하는데
반응하듯 떨어져 내리는 작은 토사와 돌맹이들.
정수, 기침을 서둘러 삼킨다. 흡-
얼어붙은 듯 그대로 있는 정수.
그대로 적막이 흐른다. 모든 것이 멈췄다.

헉.. 헉.. 헉..
두려움 가득한 호흡소리...
더듬더듬.. 불을 다시 켜보지만 머리 위 실내등은 아예 나갔다.
뒤쪽으로 손을 뻗치면, 딸깍.. 다행히 가운데 실내등이 켜진다.
아까보다 더 좁아진 공간.
정수, 극한 상황에서도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한다.
발을 움직여 운전석 바닥을 훑는 정수. 구석구석 더듬으면.. 발아래 뭔가 걸린다.
속속- 흙을 치워보면... 핸드폰이다.
조심스레 핸드폰을 들어 올리는 정수.
핸드폰을 켜면, 다행히도 전원은 들어오는데.. 안테나가 불안하다.
119에 전화를 거는 정수.
따르릉- 신호가 가는가 싶더니. 삐리릭- 끊겨버린다.
하나 있던 안테나가 사라졌다.
조심스레 팔을 뻗쳐 안테나를 확인하는 정수.
운전석 뒤쪽에서 안테나 두 개가 뜬다.
살금살금. 운전석을 뒤로 미는 정수.
그런데.. 순간, 덜컥- 한꺼번에 뒤로 밀리는 운전석.
후드득- 안으로 떨어지는 흙더미.
툼툼, 입안에 들어간 시멘트 분진을 뱉어내는 정수.
하나에서 두 개 사이를 오가는 안테나...
호흡을 몰아쉬며, 119에 다시 전화를 건다.
따르릉~ 다행히 신호가 간다. 딸깍..

이정수 여보세요?!
교환원(소리) 119 안전센터입니다. 무슨 일이 십니까?

마치 몰래 통화하는 듯, 심장이 두근거리는 정수.

이정수 (작게) 터널이 무너졌어요. 제 차가 그 밑에 깔렸어요.. 여기가..

교환원(소리) 안 들립니다. 선생님, 크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이정수 (그래도 작게) 터널이 무너졌어요, 터널. 터널이 무너졌다구요.

혹시라도 큰 소리에 들들이 또 무너질까 최대한 나지막이 말하는 정수.

교환원(소리) ..예, 터널이.. (전달 됐는가 싶었는데..) 그러구요?

치직, 치직- 수시로 잡음이 끼어든다.

전달이 안 되는 듯.. 답답하다.

이정수 (다급, 더욱 커지는 목소리) 터널이 무너졌다구요!

교환원(소리) ..예? 지금 터널이 무너.. (치직) 말씀이십니까?

소리가 끊겨서 들린다.

이정수 예! 빨리 좀 와주세요.

교환원(소리) 어느 터널 말씀하시는 건가요?

매주 지나다니는 터널인데 순간 머리가 하얗다.

교환원(소리) 선생님? 어떤 터널 얘기하시는 거죠? ..선생님?

교환원의 되묻는 질문과 치직거리는 잡음이 기억을 방해한다.

이정수 ...(번쩍) 하도터널요. 하도터널. 18번 국도에 있는 거요.

잠시 말이 없던 교환원.

교환원(소리) 하도 터널.. 말씀하.. 맞습니까?

이정수 맞아요. 빨리 좀 와주세요. 빨리. 여기 계속 무너져요.

(반응이 없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뚜-뚜-뚜- 끊기는 핸드폰.

제기랄.. 신고가 되긴 한 건가...? 어디까지 전달됐는지 모르겠다.

정수, 다시 119로 전화를 해보려는데, 신호가 잡히지 않는다.

손을 뻗쳐 수신위치를 옮겨보면.. 안테나가 들어온다.

조심조심.. 다시 119버튼을 누르려는데 따르릉- 걸려오는 전화.

이정수 (황급히 받는다) 여보세요?
119간부(소리) 여긴 119본분데요. 좀 전에 터널 사고 신고하신 분 맞습니까?
이정수 예. 맞습니다. 하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치직- 계속해서 잡음이 끼어든다.

119간부(소리) 아.. 잘 안 들리거든요, 위치를 옮겨서...
이정수 아뇨, 아뇨. 밖으로 못나가요. 다 막혔어요.
119간부(소리) 지금 차안에 계신건가요?
이정수 예, 예.
119간부(소리) 많이 다치셨어요?
이정수 예 ,예, ..아, 아뇨, 몸은 많이 안 다쳤는데..
119간부(소리) 거기 선생님 ..자 계십니까?
이정수 (안 들리는지) 예? 뭐라고요?
119간부(소리) 혼자냐구요? 혼자!
이정수 예! 혼자 있어요.
119간부(소리) ..차위로 낙석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 거죠?

뭐야.. 그토록 설명했는데..

이정수 아니, 완전히 깔렸단니까요. 사방이 다 돌이예요, 돌!
몇 번이나 얘기해야 돼요?!

119간부(소리) ..어느 정도 무너졌나요?
이정수 (답답하다) ..많이 무너졌어요, 많이..
그만 묻고 빨리 좀 와주시면 안 될까요? 예? 여보세요?
119간부(소리)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확인하고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이정수 (옥!) 뭘, 또 확인하고 와요, 그냥 와서 확인하시면 되잖아요!
119간부(소리) 선생님, 너무 걱정 마시고 잠시만 기다리시면 저희가 바로 도착하겠습니다.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이정수 이정수요. 이정수. 기아자동차 하도점 이정수입니다. 금방 오시는 거죠?
119간부(소리) 예, 안 막히면 5분 내로 도착합니다. 안전한 곳에서 기다려 주세요. (딸깍)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라니.. 어이는 없지만
곧 119가 도착한다는 말에 어느 정도 위안이 된다.
격했던 호흡이 조금씩 잦아든다.

정신을 차리다... 아내가 떠오른다.
차분히 호흡을 가다듬고 전화를 거는 정수. 오늘따라 대기음이 길다. 딸깍..

이정수 여보? 여보?!
세현(소리) 어, 왜?

이정수 나, 나.. 지금..

수화기 너머 딸 목소리가 언뜻 들리자, 말하려다 말고..

이정수 여보, 지금 어디야?

세현(소리) 마트 가서 잡채하고 미역국 꺼리 좀 사려고.
(뒷좌석에 앉은 딸 수진에게) 수진아, 벨트 풀지 마. 위험해.

이정수 운전하고 있어?

세현(소리) 어, 목소리가 왜 그래, 감기 걸렸어?

이정수 아니.. 어.. 내가 터, 터널에 좀.. 갇혔어.

세현(소리) (잘 못 들었는지) ..알았어, 빨리 와.
(수화기 너머로 주차요원의 목소리가 들린다) 나중에 통화해.

이정수 ..여보, 바로 전화 줘. 바로. 알았지?

세현(소리) 알았어. 끊어.

바쁘게 끊기는 전화.

정수, 후우- 여전히 두려움 가득한 얼굴로 주변을 살핀다.

이정수 하아.. 하아.. 이게 뭐 일이냐.. 하아..

S#5. 마트 주차장 입구. 낮

지하 주차장 출입구, 차단기가 올라가면..

좁고 어두컴컴한 길을 따라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세현의 차량.

S#6. 터널 안. 정수차. 낮

따르릉- 불빛을 내며 울리는 핸드폰. 정수, 서둘러 받으면,

이정수 여보세요?

119간부(소리) 이정수씨?

이정수 예!?

119간부(소리) 119 안전센탑니다.

이정수 (다급히) 도착하셨나요?

119간부(소리) 저희 대원들이 거의 다 도착했을 겁니다.

아, 다행이다.

이정수 ..지진 난 거예요?

119간부(소리) 아뇨, 지진은 없었어요.

이정수 근데 왜... 그럼 언제 쫓 나갈 수 있나요?

119간부(소리) 파악해 봐야 알겠지만, 뭐.. 오래 안 걸릴 겁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이정수 아.. 감사합니다.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아..

암튼 빨리 좀 꺼내주세요.

119간부(소리) 일단 좀 쉬고 계시면 저희가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아 예. (끊고는) ..아, 됐다. 하아, 아...

마음을 진정시키던 정수, 바닥에 떨어진 김빠진 콜라를 벌컥벌컥 마신다.

콜라가 오히려 갈증을 부르고.. 이번엔 주유소에서 받은 생수를 들이키다가

화장지에 물을 적서 눈꺼풀과 코 안에 먼지를 닦아낸다.

쿵쿵.. 코로 숨을 들이켜 보면, 한결 낫다.

생수병을 보니 주유원 할아버지가 떠오른다.

이정수 (제기랄..) 3만원만 넣었으면 그냥 지나갔을 텐데.. 아, 그 노인네 진짜..

S#7. 터널 북쪽 입구(서울방향). 낮

삐뽀삐뽀-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 차량, 달랑 한 대.

119대원 서넛이 차에서 내려, 먼지 가득한 사고현장을 바라보고 있다.

멍~ 모두들 당황한 얼굴들이다.

얼빠진 얼굴로 통화 중인 대원.

119간부(소리) 상황 어때? 낙석 많아?

119대원 ..무너졌는데요..

119간부(소리) 얼마나?

예상치를 훨씬 넘어선 상황 앞에 할 말을 잃은 대원들..

온통 부서진 콘크리트 구조물과

쓸려 내려온 거대한 흙더미, 엉망으로 쓰러진 나무들...

터널의 존재는 오간데 없고..

‘터널 내 안전운행’이란 표지판만이 이곳에 터널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

이를 모르는 간부, 분위기 파악 못하고는..

119간부(소리) 어떻게, 니들끼리 되겠냐?

S#8. TV화면 + 사고현장. 낮

각종 매체에 붕괴소식이 전파된다. 시그널 뮤직에 이어 앵커의 흥분된 소리가 들린다.

A앵커 시청자여러분, 오늘 낮 대한민국의 안전이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이번엔 터널입니다. 개통된 지 한 달이 채 안된 터널이 처참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다다다다- 하도산 상공을 맴도는 방송헬기.
산이 움푹 꺼진 모습이 보인다. 그 위로 콘크리트 구조물이 폭격 맞은 듯이 무너져있다.

기자1 저는 지금 18번국도 하도 터널 붕괴현장 상공에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 방향 터널북쪽입구는 그 흔적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그 위에 건설 중이던 고압송전탑 철근들이 모두 엇가락처럼 휘어졌으며 주변 아름드리나무들도 일제히 한 방향으로 누워 있습니다. 또한 아직 남아있는 터널 남쪽 입구 주변도 당시의 충격을 말해주듯이 도로 위로 시커먼 분진이 가득합니다.

터널 양쪽 입구엔 수십 대의 구급대 차량과 경찰 차량들이 사고현장과 멀찍이 떨어져 경광등만 반짝이고 있다.

S#9. 마트. 저녁

마트 천정에 설치된 모니터에서 터널 붕괴 소식이 속보로 나오고 있다.
카트에 딸 수진이를 태우고 무빙워크에 들어서서 세현.
모니터 아래를 지나갈 무렵, **속보, 매몰자 신분 확인'** 자막이 커다랗게 보이더니 명단이 뜬다. **'이정수(남, 38세)'**

세현 !!!

모니터를 지나치자,
후다닥 무빙워크를 거슬러 올라 화면을 다시 확인하는 세현.
열게 모자이크 된 사진 속의 남자. 남편이 맞다!!
당황한 세현, 상황을 채 받아들이기도 전에..
투둑... 딸이 타고 있던 카트 제동이 풀려버린다.
브레이크를 잃고 빠른 속도로 미끄러지는 카트.

세현 (찢어질듯) 악!

이미 저만치 내달리는 카트.
우당탕탕! 아래층 진열장을 박살내고서야 멈춰 선다.
카트위로 쏟아져 내리는 유리파편.
자지러지듯 달려온 세현, 카트위에 덮친 물건들과 유리 조각을 맨 손으로 걷어내면..
장난감 상자 아래 잔뜩 움크린 수진. 다행히 다치지 않았다.

으아앙~ 울음이 터지는 수진.

헉.. 헉,, 거친 호흡을 내뿜는 세현, 수진을 감싼 그녀의 손에 피가 흐르고..

수진의 안전을 확인하자마자 자신의 상처엔 개의치 않고 서둘러 정수와 통화를 시도한다.

그 뒤로 보이는 모니터엔 매몰자 남편 이정수의 얼굴이 보인다.

S#10. 터널 안. 정수차. 저녁

이정수 (작은 신음) 아!

정수 손가락에 빨간 피가 맺힌다.

얼굴에 상처를 입힌, 철선들(강섬유)을 휘러다 찢린 정수.

입으로 상처 난 손가락을 빨고는, 다른 손으로 뽀족한 철선들을 하나씩 구부리고 있다.

따르릉- 벨이 울린다.

서둘러 받으면, 딱- 끊어진다.

정수, 수신이 잘되는 위치로 핸드폰을 옮기면.. 안테나가 뜨자마자,

딩동, Ding동, Ding동., 수십 개의 부재중 통화와 문자가 쓰나미처럼 몰려온다.

자극적인 소리에 진동으로 전환해도..

징, 징, 징.. 미친 듯이 울려대는 핸드폰.

문자가 순식간에 50통이 넘는다. 왠지 무섭다.

이정수 (당황) 뭐야?

문자를 확인하면..

‘이정수씨, 연락바랍니다. ..행안부 조과장’,

‘이정수씨, 저희랑 통화 좀 해요. ..한국도로공사 지부장’

‘연락바람, 도청 건설과’, ‘뉴스.. 혹시 너니?’, ‘너 어디냐?’ 등등

각종 기관과 지인에게서 온 문자와 부재중 통화가 수두룩하다.

확인하는 중에도 연이어 도착하는 문자. 징, 징.. 정수 배터리를 갹아먹고 있다.

곧이어, 전화가 걸려온다.

모르는 번호.. 일단 받으면..

이정수 (조심스레) 여보세요?

(소리) 이정수씨 되십니까?

이정수 예.

(소리) 지금 터널 밑에 계신 이정수씨 본인 맞는 거죠?

이정수 (구조대란 생각에) 아, 왔어요?

‘야야, 연결됐어. 빨리 연결해, 빨리’ 수화기 너머 사람들의 소리가 들린다.

(소리) 전 SNC 조양철 기자입니다. 이정수씨 지금 상황이 어떤 신가요?
이정수 (어떨떨..) 예? ...아..
조기자(소리) 지금 차 밖으로 나가실 수는 있나요?
이정수 아뇨. 밖은 다 무너져서 못 나가는 데요.

그사이 '연결됐어. 10초전' 지들끼리 상기되어 서로 고향치는 소리가 들린다.

조기자(소리) 이정수씨. 지금 통화하는 거 방송으로 내보내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이거 방송 나가면 이정수씨 구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정수 (머뭇머뭇)

계속되는 통화에 정수 핸드폰 배터리가 줄어든다.

S#11. 시내 거리. 저녁

대형건물 옥외 광고판에 보여 지는 뉴스화면.
'생존자 단독 전화통화중' 이란 자막이 커다랗게 뜬다.
지나던 사람들, 서둘러 스마트폰 뉴스에 접속한다.

S#12. 터널 안. 정수차. 저녁

조기자(소리) 구조작업이 진행되어 봐야 명확해지겠지만, 붕괴규모로 봐선 꽤 장기화 될 수도 있는데요, 그 안에 버틸 만한 음식물은 있습니까?
이정수 (당황) 예? 장기화요?! 오래 걸린다는 말인가요?
조기자(소리) 대책본부로부터 구조계획을 들으신 건 없는 건가요?
이정수 (안절부절) 아니... 아.. 그럼 얼마나 걸린다는 거죠?
조기자(소리) 상황이 전달되지 않은 거 같은데요, 하도방향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서울방향 입구는 아예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정수, 기자의 청천벽력과 같은 말에 당황하는데...

조기자(소리) 이정수씨, 지금 심정은 어떠신가요?

S#13. 터널 남쪽 입구. 구조본부 상황실. 저녁

핸드폰으로 인터뷰 장면을 보고는 서둘러 걸어가는 구조대원(김대경), 구조본부천막을 확- 제치며 들어선다.

김대경 (홍분) 저거 지금 어디서 통화하는 거야?

이제 막 각종 장비들이 설치되느라 어수선한 상황실.
구조대원들이 TV를 불편한 얼굴로 지켜보고 있다.

막내대원 저기 봉고에서 하는 거 같은데요.

천막 뒤쪽에 주차된 차량을 가리킨다.

김대경 그럼 말려야지.. 배터리 떨어지면 어떡하라고.

지목된 차량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가는 대경.
차 안에서 조기자가 이정수와 통화 중에 있다.
대경이 다가서자, 차 앞에 있던 방송국직원들이 막아선다.

방송국직원 안에서 지금 생방송중입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김대경 빨리 끊어요. 당신들 이러면 안에 있는 사람 위험해져요!

방송국직원 예, 예. 곧 끝나요. 잠시 만요.

방송국 직원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자,
돌아서던 대경, 후다닥- 차 문을 열고 냅다 소리를 지른다.

김대경 (버럭) 지금 끊으라고!

TV 생방송 뉴스에 대경의 고함이 들리고.. 놀라는 상황실 대원들.

방송국직원에게 의해 저지당하는 대경.
그사이 서둘러 마무리하고 밖으로 나오는 조기자.

조기자 당신 뭐야? 생방송 중에 무슨 행패예요? 지금 뉴스 나가는 거 안 보여?!

김대경 기자님들. 방송이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해요?

조기자 ...?

김대경 그 쉬운 질문에도 답변 못해요? 기자님 땀에 저기 갇힌 사람 핸드폰 배터리 떨어지면.. 저 사람, 고립단절로 인한 불안, 패닉, 심장 박동수 증가, 호흡곤란, 혈관 내 산소결핍으로 인한 경동맥 협착, 그리고 다발성 장기부전에 의한 심장박동정지, 그 다음엔.. 책임지실 수 있겠어요?
이정수씨한테 (핸드폰을 뺏어들며) 이거 동아줄이에요.

기자 핸드폰에서 이정수 번호를 지워버리는 대경.

조기자 지금 뭐하는 거야!?
김대경 또 멋대로 전화하시면.. 기자윤리조항 18조2항 위반으로 언론에 제보합니다.

순간, 위촉되는 조기자.
턱, 핸드폰을 주고 돌아서려던 김대경.

김대경 (버럭) 빨리 차 빼요. 알 만한 사람들이 여따 차를 대고 그래!
 저 라인 뒤로 물러나요. 어서!

S#14. 구조본부 상황실 안 + 정수차(교차). 저녁

구조본부 안으로 들어오는 김대경.

장단장 (대견하다) 잘했어. 역시 아는 게 힘이다. 그냥 짝소리 못하네.
 기자윤리.. 아까 뭐라 그랬지?
김대경 (무뚝뚝) 그거 그냥 지어낸 말인데요.
장단장 (황당) 그런 거 없어?
김대경 몰라요.

어이없는 장단장.

막내대원 기자들도 암말 앓는 거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는 거 같은데요.
김대경 이정수씨와 통화한 상황판 쭉봐.
상황대원 그런 거 없는데요.
김대경 누가, 언제, 무슨 내용으로 통화했는지 기록 없어?
상황대원 예.

한심스럽다는 대경.

상황판에 적힌 이정수 핸드폰 번호와 인적사항(딸 이름도 적혀있다)을 지워버린다.

김대경 이런 거 적어놓지 마.
상황대원 ..예.
장단장 앞으로 여기 조난자대응은 김대경 구조대장이 맡기로 했으니까
 그리 알고 보고체계 확립하도록.
김대경 대응매뉴얼은?
막내대원 (그건 준비해왔다는 듯) 여기 있습니다.

사고 매뉴얼을 살펴보면, ‘붕괴란 허물어져 무너짐이란 뜻으로 포개어 쌓이거나...’ 등등 용어에 관한 정의가 장황하게 정리된 매뉴얼.

김대경 ..최근 꺼는 없나?
박내대원 ..미국 애들 꺼 원어로 된 게 있는데, 지금 번역 중에 있습니다.
김대경 (뭐라고 해야 할지..) ..그래..

그때, 다급히 부르는 대원.

상황대원 이정수씨 쪽에서 전화 들어왔는데요?
김대경 (서둘러 받는다) 이정수씨? 대책반 김대경입니다.
이정수(소리) (격하다. 버럭) 뭘케 전환 안 받아요!
김대경 (순간 당황) ..예?
이정수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아깐 금방 구할 수 있다면서요!
왜 자꾸 말이 달라져요! 예?!

정수 목소리가 흥분상태다.

김대경 이정수씨, 진정하시고 제 말을..
이정수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요?!? 태평한 소리 좀 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 봐요.
예?!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제발 좀 사실대로 말해 보라고!

점점 격해지는 이정수.

김대경 아.. 이정수씨, 이러시면 제가 얘기를 못합니다.
이정수 야, 이 개새끼야, 니들 계속.. 판사람 바꿔. 빨리! 빨리 바꿔!
김대경 (차분히) 제가 담당자거든요. 저랑 말씀하셔야 합니다.
이정수 야, 이 개.. (욕을 하려다 거둔다)
김대경 이정수씨, 제가 말을 하려면 이정수씨가 먼저 흥분가라 앉히셔야 합니다.
힘들어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깊게 호흡하시고..
이정수 (참으려 애쓴다) ...됐으니까, 빨리 말해요.

대화를 자신의 페이스로 끌고 가려는 대경,

김대경 자 이정수씨, 숨 크게 들이키세요.
이정수 (씨발.. 하지만 결국 따르다) 후, 후.. ..말씀하세요.
김대경 좋아요. 전 구조담당자 김대경이구요. 이정수씨 핸드폰 배터리 잔량 어때요?

심호흡을 하고는 핸드폰 액정을 확인하는 정수.

이정수 ..78프로 남았어요.
김대경 충전기 있어요?
이정수 아.. 모르, ..없어요. ...근데 그건 왜 물어요?
김대경 사실대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상태는 간단치는 않습니다. 물론 구출되시겠지

만..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는 애깁니다. ..이정수씨, 차내에 먹을 게 좀
있나요? 물이나 음료수, 그리고 음식물 같은 거..

(대답이 없자) 이정수씨, 자.. 정신 차립시다. 이정수씨, 물 있어요? 물?

시간이 좀 걸릴 거 같다는 말에... 낙담한 이정수.

김대경 이정수씨! 물 있습니까? 대답하세요.

이정수, 둘러보면, 바닥에 나뒹구는 물병 두 개와 한쪽에 처박힌 케이크 상자가 보인다.

이정수 생수 두 개하고 케이크하나요.

김대경 몇 리터짜리죠?

이정수 작은 거요.

김대경 ..케이크는 오래 못가니까 빨리 드시고요. 물이 좀 중요한데... 일단 7일 정도
드신다 생각하시고.. 눈금이라도 그어서 최대한 일정하게 조금씩 나눠서
드세요. 입대고 마시면 안 됩니다. 세균 오염되니까.. 알았죠?

이정수 여기... 일주일 넘게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김대경 ..그 물 떨어지기 전엔 구해낼 겁니다.

..이정수씨, 제가 물을 어떻게 먹으라 했죠?

이정수 ..입대지 말고 조금씩, 7일 정도...

김대경 정확히 기억하시네요. 좋습니다. 혹시 차량 전원이나 시동 켜 보셨습니까?

이정수 전원은 들어오는데 시동은 아직.. 매연 나올 꺼 같아서..

김대경 그렇죠, 좋습니다. 아.. 밧데리만으론 실내등 하루 이상 안가니까 되도록
아끼시구요. 지금 어디 계시나요? 운전석이신가요?

이정수 예.

김대경 혹시 좀 더 넓은 공간은 없나요?

이정수 ..뒷좌석요.

김대경 그럼 전화 끊으시면 뒷좌석으로 옮겨서 몸을 최대한 펴고 계세요.

계속 웅크리고 있으시면 근육이나 신경계 마비 증세가 올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이정수씨 현재 위치를 알 수 있을 까요?

입구에서 얼마나 들어가셨는지.. 이거 구조에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정수 ..꽤 들어왔던 거 같은데.. 아, 제 차 위로 천정 환풍기가 떨어져 있어요.

김대경 아, 환풍기요? (동료에게 다급히) 설계도, 설계도. 빨리.

우당탕탕, 캐비닛을 뒤져 설계도를 가져온다.

좌- 펼치면, 접혔던 가운데가 주욱- 찢어진다. 당황하는 막내대원.

대경, '이런 개새끼..' 이런 표정이다.

찢어진 부위를 대충 맞대고 설계도를 살피면, 환풍기가 총 7개다.

김대경 혹시 터널 출구가 보였나요?

이정수 ..안 보였어요.

맨 앞쪽 환풍기를 사선으로 그어 버린다.

김대경 또 기억나시는 거 없으세요?
이정수 커브 길 들어와서 좀 달렸던 거 같고..

남쪽 입구 것도 제외하는 대경. 남은 건 다섯 개.

이정수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경 예, 됐습니다. 혹시 또 떠오르는 거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앞으로 낮 12시에 소식 전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그만 끊겠습니다.
 핸드폰 바로 꺼두시고 제 번호, 문자로 남겨 놓을 테니까 그 번호로
 연락하시구요. 다른 것들은 모두 받지 마세요.

통화하는 사이, 막내대원이 배터리 아끼는 방법을 찾아 보여준다.

김대경 아, 그리고 와이파이, 지피에스, 블루투스 다 끄시고, 화면 밝기 줄이시고,
 각종 어플, 백그라운드 앱 새로 고침, 다 차단시키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정수 ..예.

기특하다는 듯 막내대원 머리를 한 번 쓰다듬는 대경.

이정수 ..저기요..
김대경 예, 말씀하세요.
이정수 아까 누구라 하셨죠?
김대경 예, 김대경 구조대장입니다.
이정수 ..저 구할 수 있는 거죠?
김대경 저희가 사람 구하는 데는 대한민국 최고 베테랑입니다. 곧 나오실 겁니다.
이정수
김대경 앞으로 혼자 버티시는 거, 쉽지 않으실 겁니다.
 ..이정수씨, 가족 있으시죠?
이정수 예.
김대경 가족 분들께 돌아가셔야죠.
이정수
김대경 나오시는 날, 그때 뵙겠습니다. (딸깍)

설계도를 들여다보는 대경, 나머지 환풍기 5군데에 동그라미를 친다.

S#15. 터널 안. 정수차. 저녁

생수병을 힘없이 바라보는 정수.

이정수 후- 일주일.. 하아..

목이 타지만 꼭- 참고는.. 뒷좌석으로 천천히 몸을 옮기는 정수.

지잉, 지잉- 울리는 전화.

가까스로 뒷좌석으로 넘어온 정수, 핸드폰을 보면.. 아내의 전화다.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목소리를 가다듬는 정수.

세현(소리) 오빠!

이정수 (태연한 척) 어. 집이야?

세현(소리) 오빠, 괜찮아? 다친 데는..?

이정수 (알았구나.. 애써 밝게) 나 괜찮아.

세현(소리) (울컥, 하지만 참는다) ..어떡해..?

이정수 아냐, 진짜 괜찮아. ..곧 나갈 수 있대.. 좀 전에도 확인했어.

세현(소리) (결국 울음이 터진다) ..미안해. 내가 주말에 서울 올라오라고만 안했어도.. ..미안해 오빠. 어떡해..

이정수 무슨 소리야. 왜 당신이 미안해. 울지 마. 나 곧 나갈 건데.. 여보?

세현(소리) ..배터리 아껴야 해서 조금씩만 통화하라고 그랬는데.. (홀쩍)

이정수 ..수진이는, ..알아?

세현(소리) 일 땀에 못 온다고 했어. ..바꿔줄까?

이정수 ..그래.

후우- 한숨을 내쉬는 정수.

수진(소리) (받으며) 아빠, 어디야?

딸의 목소리에 참았던 감정이 올라온다.

이정수 (울컥) 미안해 수진아. 아빠가 수진이 생일 케익 사들고 갈라 그랬는데 일이 좀 생겼어. 미안해.

수진(소리) 아빠, 나 아까 넘어져서 울었어.

이정수 ..어, 그랬구나. 많이 아팠어?

수진(소리) 어..

‘수진아, 아빠 바빠서 빨리 끊어야 돼.’ 아내 목소리가 들린다.

수진(소리) 아빠, 나 지금 할머니 집 가니까 아빠도 할머니 집으로 와. 케이크 하고 선물도 가지고 와야 돼, 강아지!

이정수 ..그래. 알았어. 갖고 갈게.

수진(소리) 정말? 엄마! 아빠가 강아지 갖고 온데!

마트 지하주차장. 세현차

지하주차장에서 벗어나지 못한 세현, 수진은 뒷좌석에서 카봇을 안고 있다.

세현 엄마한테 수진이 맡기고 바로 내려갈게.
이정수(소리) 뭐하러 내려와. 힘들게.
세현 갈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몸조심하고.. 알았지?
이정수(소리) 그래. 조심히 와. (딸각)

애써 두려움을 감췄던 세현의 얼굴이 몹시 떨고 있다.
한참동안 출발하지 못하는 세현의 자동차.

다시 정수차.

멍하니 앉은 정수. 감정을 추스르다.. 힘없이 핸드폰 전원을 끈다.
차량 배터리를 아끼려 실내등도 꺼버리자...
순식간에 암흑으로 바뀌는 주위.
적막 속에 들리는 거라곤 숨소리뿐. 하아...
그 순간, 툭툭..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자..
후다닥- 다시 실내등을 켜는 정수.
두려움 가득한 얼굴... 정수의 모든 감각이 곤두 서있다. ..또다시 무너지는 건가..
'툭툭..' 획- 돌아보면, 콘크리트에 붙은 모래알갱이들이 떨어진다.
모래알갱이가 멈추자, 소리도 멈춘다.
소리의 정체를 확인하고서도 불안감이 떨쳐지지 않는 정수.
하아- 하아- 하아-
정수, 불을 끄지 못한다.

S#16. 구조본부 회의실 ~ 상황실. 밤

아까와 달리 각종 장비들이 자기 자리를 잡은 상황실.
옆 방 회의실에선 장관을 비롯한 여러 실무진들이 모여 회의 중이다.
터널 상황을 보여주는 커다란 모니터...
터널 위로 육중하게 솟은 산봉우리 그래픽이 보인다.

강단장 터널 길이가 총 1.9키로, 현재 이정수씨 위치는 여기 표시된 다섯 곳 중 하나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제일 얇은 곳도 100미터가 넘고 암석이 많아서 위에서 뚫는 건, 시간 소모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구요, 그래서.. 안쪽까지 무너지지 않았다면 남쪽 입구로 진입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되는데.. 그 여부는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바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장관 붕괴 원인분석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보좌관 원인분석은 감사팀이 구성되는 대로 따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장관 구조방법은 전문가들이 잘 의논해서 진행해요.
모두들 우리 가족 일이라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합시다.

강단장 (눈치를 살피더니) 그리고 근처서 진행 중인 하도 제2 터널 공사는
당분간 중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관 2터널은 뭐예요? 여기 터널이 또 있어요?

보좌관 예, 인근에서 지금 공사 중인데, 마지막 구간 발파작업이 남아있답니다.

하도시장 거리가 꽤 떨어졌는데 서로 지장 있을까? ..하도신도시 입주까지
얼마 안 남아서 그쪽이라도 빨리 완공돼야 되는데...

서로 눈치를 보는 간부들. 어느 누구도 선뜻, ‘기다 아니다’ 나서진 못한다.

장관 잘 협의해서 진행하세요. 자, 우리 모두 수고들 합시다.

브리핑 장을 떠나는 장관, 밖으로 나가려는데.. ‘장관님, 그쪽이 아니라 이쪽이십니다.’
‘아, 그래? 출입구표시가 없네.’ 구시렁거리며 돌아가는 장관일행,

사람들이 빠져나가자 기다리던 막내대원이 다가온다.

막내대원 대장님, 이것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김대경 ...?

상황실

두 개의 화면 앞에 모여 있는 대원들.
한 화면엔 터널 남쪽 입구가, 다른 쪽엔 북쪽 출구가 보인다.

막내대원 여기 보시면 11시 18분에 남단으로 흰색 SUV 한대가 들어가고

화면엔 흰색 차량이 터널 안으로 진입한다.
곧이어 뒤따라오는 짙은 색 차량.

막내대원 요 차가 이정수씨 차량입니다.

잠시 후, 터널이 붕괴되고 짙은 먼지가 입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막내대원 나오는 게 찍히지 않은 거로 봐서는 흰색 차량도 안에 있는 거 같습니다.
강단장 (탄식) 아.. 다른 신고 없었지?
막내대원 (암울) 예.
김대경 이거 경찰에다 차량 조회하고 몇 명 탔는지 확인 좀 해달라고 해.

어두운 얼굴로 모니터를 보면,
터널에서 쏟아지는 시커먼 분진이 모니터화면을 가득 채운다.

S#17. 터널 남쪽 입구. 이른 아침

먹구름이 무겁게 가라앉은 터널 남쪽 입구.

어두컴컴한 터널 안. 초입이 굽어진 상태라, 밖에선 터널 안 상황이 보이지 않는다.

웅성웅성, 카메라가 달린 드론(무인 비행체)을 체크하는 사람들.

드론에 달린 카메라에서 보내는 화면이 간이테이블 위에 설치된 모니터에 나오고 있다.

드론기술자 **지금 날리면 될까요?**

강단장 **예.**

윙- 출발하려는데, **‘잠시 만요!’**

조기자 **카드 좀 갈구요.**

스틸 카메라 메모리 카드를 교체하는 조기자.

어이없는 대경, 나서려는데.. 강단장이 내비 두라며 잡는다.

조기자 **자, 됐습니다. 가지죠.**

‘앞에 좀 앉아주세요’ 취재경쟁중인 기자들.

어수선한 가운데, 부우웅- 상승하는 드론.

찰각, 찰각, 찰각, 엄청나게 터져대는 카메라 플래쉬. 낮인데도 눈이 부실 지경이다.

드론이 터널 입구에 다다르자..

상황대원이 안전펜스 밖에 대기 중인 무리들에게 소리친다.

상황대원 **지금부터 출발하시면 됩니다.**

말이 떨어지자마자 안전펜스 뒤에서 대기하던 십여 대의 드론들이 일제히 상승한다.

부왕, 부왕, 부우우우왕- 언론사 드론들이다.

상황대원 **언론사 드론들은 저희 꺼 하고 붙으시면 안 됩니다. 이 거리 유지하세요.**

부우웅- 앞선 드론을 따라 터널로 향하는 언론사 드론들,

그 모습이 스타워즈 모션을 뒤따르는 작은 전투기의 편대비행을 연상케 하더니,

그 중 하나는 벌써부터 터널 입구에 충돌하여 떨어져나간다.

과도한 취재경쟁에 못마땅해 하던 대경,

김대경 **(고소해하며) 지랄들 한다.**

누가 들을 까 특- 치는 강단장.

터널 곡선구간을 지나 직선으로 들어서는 앞선 구조팀 드론.

강단장 오케이. 쪽쪽 들어가라.

작은 불빛으로 시커먼 터널 안을 비추며 전진하는 드론.
화면이 치직- 거릴 때 마다 괜히 아슬아슬하다.
주욱, 주욱- 들어가는가 싶더니, 기우뚱! 한 쪽으로 기울어지는 화면..
'어? 어?' 하는데, 그만 바닥으로 추락하고 만다.
아스팔트를 비추는 드론의 카메라.

강단장 뭐야? 왜 그래?

조종간을 아무리 만져 봐도 꿈쩍 않는다.

드론기술자 (난처) 신호를 못 받나..
김대경 얼마 멀지도 않잖아요.
강단장 (언론사 쪽을 향해 황급히) 그쪽은 어때?

하지만 언론사 드론들도 순차적으로 떨어지더니 끝내 모두 전멸이다.
'뭐야, 왜 그래?' 웅성거리는 사람들.

드론기술자 이게 원랜 5키로까지도 되는 건데, 전파방해 받는 물질이 많은 곳에선
 짧아질 수도 있거든요. 이쪽에 철광석 성분이 많아서..
강단장 (난감) 그럼 무선 말고 유선으로 가는 거 없어요?
드론기술자 케드로봇이 있긴 한데, 이 길이를 전부 커버하려면 공장가서 추가 장비를
 달아야 해서..
강단장 다는데 오래 걸려요?
드론기술자 그건 금방인데..
강단장 오케이. 빨리 킥 불러서 보내요. 아니, 우리가 나을까? 공장이 어디예요?
드론기술자 온타리오.. 미국요.

이런.. 할 말을 잃은 강단장.. 난감하다.

강단장 (혼잣말) 처음부터 외국이라 말을 하던가...

후우- 한숨 쉬는데.. 속닥속닥 귓속말 하는 대경.

강단장 (표정 변하며) 무너지면 어찌려고.

김대경 이젠 괜찮은 거 같은데요...
강단장 (잠시 고민) 아.. 몰라.
김대경 (조용히 막내대원에게) 카메라 들고 따라와.
막내대원 예? 어딜 말입니까?
김대경 조용히 해.

시간경과. 기자들이 철수한 현장.
차량 한 대가 천천히 터널 안으로 들어간다.
조수석에 앉아 카메라로 찍고 있는 막내대원, 잔뜩 긴장한 얼굴이다.
운통 시커먼 터널 안.. 아직 건재하지만 콘크리트 분진으로 두텁게 싸여있다.
덜컹, 덜컹. 도로 위에 흩뿌려진 돌맹이들과 드론들.

김대경 접나냐?
막내대원 (끄덕끄덕)
김대경 나도 접난다.
막내대원 어, 어.. 밑에 드론..

뿌지직- 그대로 뭉개는 대경.

김대경 일부러 그런 거 절대 아니다.

가까이 갈수록 돌덩이들이 점점 커지더니 더 이상 차량진입이 힘들다.

김대경 저기네.

상향등을 켜면, 무너져 막혀있는 곳이 시야에 들어온다.
현재까지 거리가.. 입구부터 550미터.

김대경 여기서 대기해.

후레쉬를 들고 무너져 내린 쪽으로 다가가는 김대경,
혹시 틈새라도 없나 살피는데, 허리 숙이고 들어갈 만한 구멍하나가 뚫려 있다.

긴장된 모습으로 주변을 촬영하는 막내대원, 갑자기 전화가 울린다.
운전석 쪽에, 대경의 핸드폰.
막내대원, 화들짝 핸드폰을 쥐려다 경적을 누른다. 빵!
마침 어두컴컴한 구멍 안으로 들어가려던 대경, 빵! 소리에 화들짝 놀란다.

김대경 왜?!

막내대원 사모님 전환데요!

김대경 (짜증) 나중에 한다 하고, 크랙션 누르지 마라!

다시 들어가려는데 또다시 빵!

막내대원 죄송합니다.

S#18. 터널 안. 정수차. 아침

눈을 번쩍 뜨는 정수. 실내등을 켜다. 분명, 뭔 소리가 들렸다.
그러다 또다시 빵! 확실하다. 경적소리다!
서둘러 핸드폰 전원을 켜는 정수.

S#19. 터널 안. 대경차. 아침

구멍으로 킁킁대며 들어가던 대경. ‘대장님!’ 막내대원의 고함에 또 놀란다.

막내대원 (고함) 대장님, 이정수씨요, 이정수!

대경, 후다닥 달려온다.

김대경 (헉헉) 여보세요?
이정수 누가 근처에 있나요?
김대경 예?!
이정수 차 경적 소리가 들렸어요! 두 번. 빵빵!

동공이 커지는 김대경.
크락션을 다시 올려본다. 빠앙!

이정수 지금도 들려요!
김대경 (밝아지는 얼굴) 저예요. 저.
막내대원 이게 들린 데요?

들뜬 막내대원, 경적을 올려댄다. 빵,빵,빵,빵,빵-

이정수 방금도 한.. 다섯 번 들린 거 같은데요. 빵빵빵빵빠앙-.
김대경 하. 우리 생각보다 일찍 만날 거 같은 데요.
이정수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아하하..

대경도 환하게 웃는데..
입속으로 시멘트 가루가 떨어진다.

뭐야?! 똘, 똘.. 내 빨는데..
뚝, 또르르.. 차 앞 유리 위로도 작은 돌가루가 떨어진다.
부우욱- 유리를 긁어대며 작동하는 와이퍼.
대경, 위를 보더니..... 굳어지는 얼굴.
터널 천정이 짝- 갈라지고 있다!
경직된 얼굴로 차에 오르는 대경.

김대경 (수화기에) 지금 당장 의자 밑으로 들어가 최대한 몸을 낮춰요.
이정수 예?

정수차

갑작스런 대경의 말에, 무슨 일인가 물어려다 말고 얼른 몸을 낮추는 정수.

대경차

대경, 차문을 닫으며, 부릉- 시동을 거는 순간,
쿵! 범퍼를 박살내며 무너져 내리는 콘크리트더미.
부아앙앙! 급 후진..
쿵! 쿵!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터널 안.
덜컹, 완전히 닫히지 않았던 운전석 문이 활짝 열리더니,
암석에 부딪혀 날아간다. 쿵!

막내대원 으아아아~

S#20. 터널 남단 + 정수차(교차). 아침

터널 안에서 들리는 굉음에 놀란 사람들.
곧이어 시커먼 먼지가 뿜어져 나오자 뒷걸음질 친다.
잠시 후, 부아앙- 먼지를 뚫고 나오는 차량.
쿵! 한쪽 구석에 처박히고서야 멈춰 선다.

한순간 공포로 내몰았던 굉음과 진동이 사라지고.. 다시 조용해지는 현장.
적막이 감도는 가운데..
끼이익- 터널 입구 위에 설치된 광고탑이.. 날카로운 쇠소리를 내며 기울어진다.
‘행복가득, 안전한 국토건설’ 문구가 사정없이 땅바닥에 처박힌다. 쿵!

대경, 혼미한 상태에서도 막내대원 안전을 확인하고는
곧바로 정수에게 전화를 하려는데, 핸드폰이 안 보인다.
차 밖으로 튕겨 나와 대원들의 핸드폰을 빌려 통화를 시도하는 대경.
따르릉, 따르릉~ ..받지 않는다. 초조한 대경.

모두들 통제선 너머에서 지켜보는데, 먼지를 뚫고 다가오는 여성. 세현이다.
얼어붙은 세현의 얼굴.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딸깍. ...드디어 받는다.

김대경 (다급히) 정수씨! 정수씨! 내 말 들려요?!
이정수(소리) ..예, 들려요.
김대경 어때요? 괜찮아요?!
이정수(소리) ...좀 더 내려앉긴 했는데.. 괜찮습니다.
김대경 (안도의 한숨)

여전히 두려운 눈초리로 대경의 통화를 바라보는 세현.

터널 안 정수차

이번 붕괴로 육중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운전석을 덮치고
차 지붕이 더 내려앉아 목을 바로 세우기 힘들어졌다.
그래도 뒤로 옮겨 앉기를 천만 다행이다.

이정수 어떻게.. 된 거예요? (불안하다) 또 무너졌나요?
김대경 하아.. 입구 쪽으로 좀 더 무너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수, 잠시간 가졌던 기대가 무너진다.

김대경 저.. 여기 지금 아내 분, 계십니다. ..통화 괜찮으시겠어요?
이정수 (막막하다) ..예. 근데 환풍기에 3번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번 붕괴로 환풍기 옆면에 새겨진 글자가 드러나 있다.

이정수 바꿔주세요.
세현 (받자마자) 오빠? 괜찮아?
이정수 어, 괜찮아. 걱정 마.

서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말을 못 이어가는 두 사람.

이정수 ..아침 먹었어?
세현 지금 그런 말이 나와?
이정수 ..나 정말 괜찮으니까 밥 먹어. (대화 나눌 정신이 아니다)
..내가 나중에 연락할게.. (딸깍)

후우- 정수, 갑자기..

이정수 (고함) 아악!

잔뜩 말라있던 입술이 짝- 갈라져 피가 맺힌다.
짧게 한 번 내지르고는 다시 고요해지는 정수.
당동- 울리는 핸드폰. 대경의 문자다.
'..죄송합니다. ..정수씨 위치가 파악 되었으니까 곧 구조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최대한 에너지를 아끼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아내 분은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정수, 아내에게 문자를 보낸다.
'밥 꼭 챙겨먹어. 나도 수진이 케익 먹을게. 내가 나중에 더 큰 케익 사준다고 전해줘.'

곧이어 답신. '응. 먹을게. 당신도 힘내.'

핸드폰 전원을 끄는 정수, 노란 실내등 불빛아래..
찌그러진 케이크를 꺼내면, 시멘트가루가 덕지덕지 붙어있다.
다 떼어내자니 케이크의 많은 부분이 버려질 것 같다.
대충 큰 덩치만 떼어내는 정수, 케이크 칼을 들고 한가운데를 자르려다
..시커먼 손으로 상자와 칼에 붙은 부분을 먼저 긁어 먹는다

S#21. 터널 남쪽 입구. 낮

산에서 내려온 벌건 흙탕물이 아스팔트 위로 밀려온다. 비가 오고 있다.

S#22. 구조본부 회의실 + 구조현장 일대(교차). 낮

차르르르르.. 엄청난 양의 플래쉬... 기자회견현장이다.

장관 어제 오전 8시 30분 이정수씨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한 저희 구조단은
 금일부로 최첨단장비를 이용, 상부에서 지하 180미터 아래 묻힌 이정수씨를
 향한 굴착에 돌입하였으며 또한 터널남단 안전보강 후 이곳으로도 진입할
 예정입니다. 이정수씨 구출을 위해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라는 대통령님의 지시에 따라, 두 트랙의 구출 작업을 병행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구조하도록 저희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관의 설명과 더불어 작업시뮬레이션이 대형 모니터에 나오고 있다.

하도산 일대. 몽타주

우지끈, 쓰러지는 나무들 사이로 중장비가 올라가고...
부다다다- 장비를 실은 헬기들이 산 위를 오가고 있다.

터널 입구 쪽엔, 통신사에서 나온 인원들이 증폭안테나를 설치한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시원하게 뚫리는 무제한 LTE’

알록달록한 홍보문구가 선명한 안테나가 높이 올라간다.

산 중턱에선, 정밀한 측량을 통해 굴착위치가 정해지고... 송전탑 잔해들이 치워지면..

그 위에 설치되는 높다란 대구경시추기.

다시 기자회견장

간절한 모습으로 장관의 발표를 지켜보는 정수아내, 세현.

브리핑이 끝나자, 기관관계자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있다.

세현 (절박하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허리 숙여 인사하기 바쁜 세현.

관료들이 너도나도 세현과 사진 촬영을 한다. 터지는 플래쉬들.. ping, ping!

다시 하도산 시추현장

딸깍, 빨간 전원버튼이 눌러지면, 거대한 시추공이 빠르게 떨어진다. 쿵-

S#23. 터널 안. 정수차. 낮

암흑 속. 쿵쿵, 쿵쿵, 마른기침 소리.

띠링- 자동차 전원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어둠 속에 파란 시계불빛이 반짝인다. 11시 20분이다.

빠르게 시간만 확인하고는 곧바로 전원을 끄는 정수.

잠시 후, 다시 켜진다. 11시 45분...

정수, 무언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

암흑 속에서 이어지는 기침소리. 마른 침을 삼키며 진정시키고 있다.

얼마 후, 다시 켜지는 시계.. ..11시 59분이다.

이정수 십, 구, 팔, 칠, 육, 오, 사, 삼, 이, 일... (다시) 십, 구, 팔..

마치 강박증 환자처럼 숫자를 세던 정수,

차량 시계가 12시로 바뀌자 실내등을 키고는..

촛촛히 눈금을 새겨 넣은 생수병 뚜껑을 연다.

..7개의 긴 선과 사이사이에 그어진 짧은 선들이 표기된 생수병.

홀털세라 조심히 뚜껑에 물을 따라 마시는 정수.

단 두 번의 목 넘김.. 눈금을 확인하고는 아쉽지만.. 생수뚜껑을 다시 굳게 닫는다.

다시 실내등을 끄려다.. 문득 생각난 정수.

뒷좌석 스키스루에 손을 넣어 트렁크의 물건들을 끄집어낸다.
뒤적뒤적.. 손톱소지세트가 나온다.
다시 뒤적이면 이번엔 손전등. 모두 고객 증정용 물품이다.
딸깍- 손전등을 켜보면 이상 없이 빛이 들어온다. 다행이다.
다시 트렁크에 손을 넣는데...
그 순간, 기이잉- 차체가 암석무게로 인해 뒤틀리고 있다.
트렁크에 팔을 넣은 채, 얼음이 되는 정수.
잠시 후, 조용해지자.. 다시 물건들을 꺼내기 시작한다.
처박아놓은 빨랫감과 손전등 두 개가 더 나온다.
손전등들이 켜지는 지 확인한 후,

이정수 (중얼중얼) 하나, 둘, 셋.. ..이걸 키고 이전 끄자.

실내등을 끄고 손전등 불빛만으로 차내를 밝히는 정수.
다시 트렁크를 살피면.. 뭔가 찰랑거리는 페트병이 잡힌다. 물인가...!
꺼내보면.. 파란 빛깔의 파워에이드인가 싶더니.. 자동차부동액이다.
아쉬워하던 정수, 부동액 뚜껑을 열고는 쿵쿵 냄새를 맡더니 슬쩍 맛을 본다.
웁! 차창 밖으로 뺏는 정수. 사람이 마실 게 아니다.
입안에 짹짹함이 여전한지 연신 뉘뉘 거리며
배터리 방전을 막고자 건전지를 모두 빼서 따로 보관하는 정수.
빨랫감 속에서 축구복 상의를 꺼내 냄새를 맡아보면..
냄새가 나긴 하지만 상관없다. 다가오는 추위에 셔츠위로 껴입는데...
순간, 동작을 멈추는 정수.
무슨 소리가 들렸다. ..이전과 성질이 다른 소리다.
정수, 귀를 기울이면.. 스윙- 환풍기 안에서 들리는 소리다.

환풍기 안을 후레쉬로 비추는 정수.
4-5 미터 정도의 어두컴컴한 환풍기 안.
회전 날개, 너머.. 저 끝 아래.. 뭔가 움직인다. 스윙-
커지는 정수 눈동자.
뭐지? ..꿈틀거린다. 뱀인가..? 언뜻 털이 보인다. 쥐이기엔 좀 큰데...
정수, 후레쉬를 왼 손으로 움기고는 짱돌 하나를 집어 든다.

이정수 (살짝 떨리는 목소리) 어이, 뭐야?

그 순간, 핵- 시커먼 물체가 돌아보면..
헉! 두 개의 불빛이 번쩍! 동물의 안광이다.
화들짝 놀랐던 정수. 다시 보면.. 그냥 개다!
어둠속의 개, 정수를 뵈히 쳐다보고 있다.

이정수 (놀람) 야 임마. 거기 왜 있어? 어? 어이!

멀뚱멀뚱 보고 있는 강아지. 정수와 반대쪽을 번갈아 본다.

(소리) 아.. 아..

열은 신음 소리가 들린다.

강아지가 내는 소리 인줄 알았는데, 재 표정이 아니다.

강아지 뒤쪽에서 들리는 ..사람소리다.

이정수 어? 거기 사람 있어요? (조용..) ..여보세요?!

(소리) ..아.. (신음) ..아.. 저기요..

희미한.. 여성의 목소리다!

이정수 어? 어디계세요?!

(소리) ..여기.. 있어요.. 차에..

여성의 목소리가 환풍기 원통을 타고 미세하게 들려오고 있다.

(소리) ..저 좀 도와주세요.

이정수 다치셨어요?

(소리) 아.. 제가 깔려있어요. ..못 움직여요.

어찌해야 하나.. 서둘러 대경에게 전화를 걸어보나 받질 않고.. 문자를 보낸다.

‘여기 생존자 있어요. 여자예요.’

그 사이, 여성의 간절한 목소리가 이어진다.

(소리) 저기요. 아저씨.. 제발 가지 마세요.

이정수 안가요. 갈 데도 없어요.

(소리) (신음) 아.. 아..

상태가 안 좋은 듯, 계속해서 신음이 이어진다.

정수, 환풍기 안을 들여다보면.. 찌그러진 회전날개가 가로막고 있다.

후레쉬를 들고 환풍기 안으로 기어들어가는 정수.

여기저기 날카로운 철근과 철사가 돌출된 환풍기 안.

위쪽 철판이 잔뜩 우그러든 것이 언제라도 암석이 밀고 들어올 기세다. ..불안하다.

뽕족한 것들을 피해 조심조심 기어가는 정수, 회전날개를 뜯어보는데..

꽁꽁.. 손으로 들고, 쿵, 쿵! 발로 차보아도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소리) ..오고 계세요?!
이정수 (힘쓰며) ..가고 있어요.

날개 끝을 잡고 휘어보려는데.. 날개의 얇고 단단한 모서리에 손바닥이 쓰리다.
꽁! 결국 회전 날개 하나를 위로 휘어놓고는 그 밑으로 기어가는 정수. 그런데..

이정수 아!

날카로운 철근이 옷을 뚫고 허벅지 생살에 박힌다.

(소리) ..무슨 일이에요?
이정수 (작은 신음) 아.. ..아뇨.. ..아이씨..

금세 피가 고인다. 상처부위를 대충 누르고는 다시 전진하는 정수.

S#24. 터널 안. 미나차. 낮

원통형 환풍기 한쪽 끝이 SUV 차량 트렁크를 뚫고 들어가
정수차와 앞 차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SUV 뒷부분으로 진입하는 정수.
사고 직전 앞에 있던 그 차량이다.
운전석에서 신음 중인 한 여성(미나). 한 20대 초반쯤 되려나..

이정수 아, 여기계셨구나.
미나 ..못 움직이겠어요.

차량을 뚫고 들어온 커다란 암석이 여성을 짓누르고 있다.
얼굴과 상체 일부만이 밖으로 나와 있는 상황.
당황한 정수, 하지만 상대가 놀랄까 애써 차분한 척한다.

이정수 어.. 제가 한번 들어볼까요?

정수, 아무리 힘을 써 봐도 꿈쩍 않는 암석.
허벅지 상처에 덧댄 화장지가 금세 피로 물든다.

이정수 (헉, 헉..) 아우.. 하아.. 미안해요. 안 되는 데요.

가까이서 보니 여성의 상태가 더욱 심각해 보인다.
몸 여기저기 상처에.. 짓눌린 부분들은 실핏줄이 터진 듯 퍼렇게 멍들어 있다.

이정수 (묻기도 미안하지만) ..괜찮으세요?
미나 딱 텐 괜찮은데.. 옆구리가 넘 답답해요. 아...

돌 밑을 들여다보면, 깨진 시멘트더미가 옆구리를 짓누르고 있다.

이정수 의자를 뒤로 밀어 붙까요?
미나 안 움직여요.

우그러진 차체로 인해 딱 끼어있는 운전석.
정수, 다른 방도가 없나 살펴보는데..

미나 얼마나 됐어요?
이정수 어.. 이틀하고 몇 시간 더 지났어요.

신음 섞인 한숨을 내쉬는 여성.

미나 저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죽나요?
이정수 에이, 무슨 소리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총 동원되어서 우리 구하는 중이에요.
걱정 마세요.
미나 진짜요? (후우- 작은 안도) 언제쯤 나갈 수 있대요?
이정수 뭐.. 곧.. 나갈 겁니다. 곧요.

정수, 옆에 앉는데.. 물경..
깁- 거리는 게.. 아까 그 강아지다.

이정수 아.. 놀래라.. 아팠잖는데, 안 짓네?
미나 목걸이요. 탱이야, 이리와.

짓음 방지 목걸이가 채워져 있다.
자리를 옮겨 다시 드러눕는 강아지.

따르릉.. 대경의 전화가 걸려온다.

이정수 (받으며) 여보세요?
김대경(소리) (흥분) 다른 사람이 있다고요?
이정수 예, 지금 같이 있어요. 이분 차에.
김대경(소리) 혹시 차량이 흰색 SUV 맞나요?
이정수 예. 맞아요.
김대경 몇 명 있어요?
이정수 여자분 한 분요.

구조본부상황실

김대경 (수화기를 막고 구조대에게) 생존자 추가 확인.
흰색 차량 여성 운전자 한명. 살아있대.

출입구 안내판을 곳곳에 붙이던 구조대원들, 생존소식에 일제히 환호한다.

이정수 아, 강아지도 한 마리 있어요.
김대경 (구조대에게) 개 추가. 개.
강단장 하하, 둘이 있으면 훨씬 버티기 좋죠. 정말 다행입니다.

걱정스럽던 세현의 얼굴에도 글썽글썽 미소가 돈다.

다시 터널 안

김대경 저기.. 여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정수 (미나를 향해) 저기 성함이..
미나 김미나.
이정수 (수화기에 대고) 김미나요, 김미나.
김대경 김미나씨 상태는요? 다친 데는 없나요?
이정수 아.. 그제.. 운전석에 있는데.. 몸 위로 커다란 돌이 누르고 있어서 전혀 못 움직이세요.
김대경 (표정이 어둡다) 혹시 출혈 있어요?
이정수 잠시 만요.

후레쉬로 구석구석 비춰보면.. 핏자국은 없다.

이정수 피는 안 난 거 같은데요.
김대경 팔다리 움직일 수 있으시나요? 혹시 모르니까 움직이진 마시고, 감각이 있는지만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손을 살짝 만져보는 이정수.

이정수 느껴져요?
미나 예.

몸을 숙여 종아리에 드러난 맨살을 톡 쳐보는데..

이정수 여기는요?
미나 (모르겠는지)
이정수 이거 안 느껴져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속속 문질러보는 정수.

미나 ..아.. 거기 좀 끊어주세요.
 이정수 (다리를 끊으며 대경에게) 감각은 있으신데요.
 미나 좀만 밑에.. 예, 거기.. ..이제 됐어요. 감사합니다.
 이정수 ..예.
 김대경 ..혹시 미나씨 상태 좀 찍어서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정수 예. 저기.. 사진하나만 찍을 게요.
 미나 (상황은 이래도 할 말은 하는) ..얼굴은 안 나오게 해주세요.
 이정수 알겠습니다.

찰칵, 사진을 미나에게 확인시킨 후 전송하는 정수.
 사진을 받아보는 대경. 상태가 안 좋아 보인다.

김대경 (나지막이) 저기.. 미나씨 안 들리게 좀...
 이정수 (슬쩍 볼륨을 줄이며 몸도 최대한 돌린다) ..이제 잘 들려요. 말씀하세요.
 김대경 그 둘 안 움직이죠?
 이정수 그러긴 한데.. 지렛대 같은 걸로 다시 해볼게요.
 김대경 아뇨, 지금 그 둘 치우면 쇼크사 올 수 있어요.
 이정수 예?
 김대경 크러시 증후군이라고 오랫동안 몸을 눌렀던 무거운 물체가 갑자기 제거되는 경우, 독성물질이 퍼지면서 쇼크가 오거든요. 저희가 들어갈 동안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낫구요.. 솔직히 다른 방도는 별로 없습니다.
 이정수 아.. 예.
 김대경 옆에서 말씀이라도 나눠주시면서 기운을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정수 ...알겠습니다.
 미나 ..아저씨, ...저기...
 이정수 (대경에게) 그럼 나중에 통화해요. (딸깍, 미나에게) 예. 말씀하세요.
 미나 저 물 좀 주실 수 있어요?

미나의 입술이 바싹 말라있다.

이정수 아, 물... 제 차에.. 있어요. 갔다 올게요.

후우-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정수.
 철근을 피해 조심조심 기어간다.

S#25. 터널 안. 정수차. 낮

생수병 두 개 앞에서 잠시 고민하는 정수. 자신이 먹을 것도 없는데..
 둘 중, 물이 적게 든 것을 들고는 축구양말도 챙겨 돌아간다.

S#26. 터널 안. 미나차. 낮

쫘르르.. 미나의 입에 물을 넣어주는 정수. 수위가 눈금 밑으로 툭툭 떨어진다.
미나, 단박에 삼키고는

미나 좀 만 더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안 줄 수도 없고.. 미적거리다가.. 어쩔 수 없이 따라주는 정수.
물줄기가 방금 전에 비해 더욱 가늘어진다.
꿀꺽, 꿀꺽.. 거의 다 마시는 미나. 이번엔..

미나 ..죄송한데요.. ..재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뻘뻘 정수를 쳐다보는 강아지, 짹짹거린다.
정수.. 물병은 거의 바닥이다.

미나 손에다 따라 주시면 되거든요.

마지못해 자신의 손바닥에 물을 따라 내미는 정수.
넠름넠름.. 훑아먹는 강아지. 손바닥에 혀가 닿는 느낌이 이상하다. ..개새끼..

미나 아저씨, 핸드폰 좀 찾아 주실래요? 저기 있을 텐데..

완전히 박살나 있는 핸드폰.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정수 이거 안 되는데요.

미나 아.. 자꾸 죄송한데요.. 저 핸드폰 좀.. 한통화만 할게요.

이정수 아, 예..

무심코 건네는데, 암석 때문에 팔을 올리는데 불편하다.

이정수 눌러 드릴 게요. 번호가..

미나의 귀에 전화를 대주는 정수. 연결된다.

미나 엄마, 나야.. 미나.. (영영..)

핸드폰 너머... 놀란 울음소리가 터져 나온다.
눈물이 솟구치는 미나.

미나 ..나 터널이 무너져서 갇혔어. ..어, 그거 나야.. ..괜찮아.. 어.. 안 다쳤어.
(한동안 말없이 울기만 한다) ..어떤 아저씨하고.. 어..
엄마.. 나 나갈 수 있겠지? ..보고 싶어.

정수도 괜히 시큰거린다.
기력이 딸려 우는 것조차 벅차 보이는 미나.

미나 통화 오래 못해. ..엄마, 나 회사에다가 연락 좀 해줘. ..어. 사정 얘기
잘하고.. (정수에게) 다음 주까진 나갈 수 있겠죠?

정수 자신도 모르긴 매한가지지만., 얼떨결에 고갯 끄덕인다.

미나 신입사원 연수회엔 꼭 간다고 말해줘. ..어. 아 그리고 엄마 차 박살났어.
미안해, 엄마. (홀쩍) 알았어. 엄마. (정수에게) 아저씨.. 엄마가 바꿔 달래요.
이정수 (당황) 예? ..아, 예.. (빨쫂) ..여보세요? (상대가 자신을 소개하자)
..아, 예. ..전 기아자동차 하도점 이정수과장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미나의 입모양이 자신의 상황을 말하지 마라는 듯하다.
어린 나이에 기특하다. 끄덕이는 정수.
딸을 돌봐달라는 엄마의 간절한 부탁이 계속되고.. 정수, 머리를 숙여 가며 듣고 있다.
미나의 임시 보호자가 된 듯한 정수.

이정수 예예..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잘 데리고 있다가 무사히 돌아가겠습니다.
(미나 엄마의 당부가 이어지는지) ..예. ..예. ..아 예. ..들어가십시오. (꾸벅)

길었던 통화가 드디어 끝났다. 줄어든 배터리..
시커먼 눈물 자국이 가득한 미나의 얼굴..

이정수 저기, 잠시만... 여기 좀 닦아주세요.

정수. 소매를 길게 빼내어 얼굴에 묻은 더러운 것들을 살살 닦아낸다.
폼에서 축구 양말을 꺼낸다. 맨살이 드러난 미나의 다리..

이정수 신었던 거긴 한데 맨살로 있는 거보단...

미나가 끄덕이자, 좌석 밑으로 기어들어가 미나 다리에 축구양말을 신겨주는 정수.

이정수 아프면 바로 얘기하세요. ..무좀은 없으니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쉽지 않다. 어렵게, 어렵게.. 발을 넣고는..

양말을 주욱- 올리면, 드리났던 맨살이 가려진다. 생각보다 높이 올라가는 축구 양말. 다 마치고서야 허리를 펴는 정수, 벌건 얼굴엔 땀이 가득하다.

미나 감사합니다, 아저씨.

웬지 뿌듯한 정수.

S#27. 작고 허름한 식당 안. 밤

늦은 저녁을 먹는 세현, 음식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
덜컹, 막내대원이 식당 안으로 들어온다.

막내대원 은돌방으로 예약했구요, 싸인은 제가 대충 했습니다.
세현 고맙습니다.

세현에게 여관방 열쇠, 신용카드와 영수증을 건넨다.
세현의 카드로 결제한 모양이다.

막내대원 원래 지원금이 나와야 되는데 절차가 좀 걸리거든요.
 일단 영수증 모아 놓으시면 나중에 정산처리 될 겁니다.
 근데 여기 여관이 다 오래 된 거뿐이라 좀..

세현 괜찮아요.

막내대원 그럼 전 그만 가보겠습니다. (꾸벅)

식당 티비에선.. 새로운 생존자 소식을 다룬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다.
정수가 부상당한 여성 생존자를 돌보는 중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 전문가들...
‘...이정수씨는 현재 부상 중인 여성을 보호하고 있으며,
함께 물을 나누는 등, 두 사람에게 닥친 재난을 침착하게 극복해내고 있습니다...’

걱정스레 바라보는 세현의 얼굴.

S#28. 터널 안. 미나차. 밤

열심히 자동차에 대고 뭔가를 하고 있는 정수의 뒷모습.
라디오 주파수를 찾고 있다. 라디오 주파수가 정처 없이 돌아다닌다.

미나 ..아저씬 뭐하세요?

이정수 주파수가 잘 안 잡혀서.. (질문을 오해했다) 아, 기아 자동차 딜러입니다.
 하도에 있는 거요.

수동으로 한 칸씩 주파수를 옮겨보는 정수.

이정수 아까 들어보니 미나씨 어디 취직하신 거 같던데...
미나 예, 졸업하고 2년 만에 간신히 취직했어요.
이정수 아, 요즘 취직 어려운데.. 축하드립니다.
미나 ..담달부터 출근해야 돼서 서울에 방 보러 가다가... 이렇게..

미나가 다시 우울해지려는데.. 치직, 치직- 라디오가 들린다.

이정수 (반갑다) 오, 나온다.

“..94.2 메가헤르츠, 클래식 전문 채널입니다. 다음 곡은 베토벤의 현악...”

이정수 (탄식) 아, 클래식.. 하필... 클래식 좋아하세요?
미나 고등학교 졸업이후 처음 들어요. ..아저씨, 이차 수리 힘들겠죠?
이정수 이거 고치려면.. 어휴 새 차 사는 게 훨 나요.

그러다 문득, 아!

이정수 (이런..) 아, 렌터카!
미나 (의아) 예?
이정수 (황급히) 잠시 만요.

렌터카 사장과의 계약 건이 생각난 정수,
핸드폰 배터리 잔량을 보고는 순간 망설이다가.. 결국 꺾, 누른다.
띠리링~ 연결음에 이어 해외로밍중이란 안내 메시지.
불길함이 감돌더니 끝내 연결되지 않는다.

이정수 (질은 아쉬움) 아, 놓쳤네.. 하아..
미나 무슨 일이에요?
이정수 ..큰 거 하나 계약하기 직전이었는데.. 아, 새카맣게 까먹고 있었네..
미나 ..저 여기서 나가면 아저씨한테 차 살게요.
이정수 (쳐다보는)
미나 첫 월급 받는 날, 계약할게요. 할부되죠?
이정수 ..안 그러셔도 되는데.. 근데 미나씨 직장 있으시니까 36개월 1.9% 저리에
5% 추가 D.C 가능하긴 하죠. ..감사합니다. 최소 마진으로 모시겠습니다.

배시시 웃는 둘.

이정수 아, 혹시 배고프진 않아요? 케익이 좀 있는데..

미나 아뇨, 지금은 별로..
이정수 그럼 나중에 같이 드시죠.

쿨룩쿨룩.. 기침하는 미나, 놀린 가슴이 아픈지 신음이 나온다.

이정수 괜찮아요?

끄덕이는 미나, 피곤한지... 졸린지... 눈이 다시 가물가물해진다.

미나 ..저 좀 잘게요.

이정수 난 내 차에 있을 테니까 불려요. (가려다 말고) 이거 가지고 있어요.

정수. 미나의 손에 후레쉬를 쥐어주고는, 떨어지지 않게 손목에 묶어준다.

미나 저 주시면, 아저씨는?

이정수 제 낀 있어요. 고객 증정품 미리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전원이에요.

미나 손을 잡고, 스위치를 같이 눌러보는 정수.

미나 도착하실 때까지 켜 드릴게요.

이정수 이건 끌게요. (실내등을 끄며) 팻테리 아껴야 돼서.. 라디오도 끌까요?

미나 좀 듣다가요. ..여러모로 넘 고맙습니다.

이정수 (가려다 말고)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안 무섭고 좋네요. ..쉬세요.

미나가 비추는 빛을 받으며 좁은 통로를 기어가는 정수.

후레쉬 불빛이 오다 말다 한다.

이정수 미나씨, 불이...

미나 죄송해요. 탱이가 물고 있었어요. 탱이야, 그만.

이정수 (나지막이) 아, 저 씹탱이.. ..개췌끼.

다시 밝아지면 날카로운 것들을 피해 조심조심.. 자신의 차로 무사히 도착한다.

이정수 (앞차를 향해) 이제 됐어요.

딸깍, 미나 쪽 후레쉬가 꺼지고.. 딸깍, 실내등을 켜는 정수.

꼬르륵, 자신의 배에서 소리가 난다.

반쯤 남아있는 케이크에 코를 대고 쿵쿵 냄새를 맡아보는 정수.

절로 나오는 침을 삼키며..

이정수 같이 먹어야지.

뚜껑을 닫기 전에 손가락으로 크림부위를 콕- 찍어, 쪽- 빨아 먹는 정수.
깨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인다.
이런.. 얼룩덜룩한 얼굴이 가관이다..

이정수 ..에이..

급한 대로 화장지에 침을 묻혀가며 얼굴을 닦아내는 정수.
살갓이 아프기만 하고 잘 닦이진 않는데 ‘꼬르륵’ 소리는 더 요란해진다.
에이- 귀찮다는 듯 관두고 눕는 정수, 가슴팍에 놓인 후레쉬를 끄면.. 암전.

S#29. 터널 안. 정수차. 낮

씩씩.. 잠자는 정수의 숨소리 위로,,
어둠속에서 부스럭, 부스럭.. 케이크 상자가 들썩거리고 있다.
잠에서 깬 정수, 불을 켜면..
강아지 탱이가 상자 안에 머리를 박고 케이크를 먹고 있다.

이정수 (헉!) 야!

강아지를 확 잡아 빼고 상자 안을 보면..
그 귀한 케이크를 다 먹어버렸다!

이정수 야이, 개새끼야~!

경악하는 정수.
정수가 우는 듯한 괴성을 지르자
쏟살같이 도망가는 탱이. 환풍기에 올라 슬쩍 한번 돌아보고는 그대로 내뺄버린다.

미나(소리) (고함소리에 깬 듯) ..아저씨.. 무슨 일이에요? ..아저씨?

이정수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별일 아네요..

말은 그리 했지만, ..정수의 눈가가 축축하다.

이정수 저 씹탱이 새끼.. 하아.. 하아..

텅 빈 케이크 상자 안, 깨끗이도 먹어치운 탱이.
허탈한 정수.. 힘없이.. 바라보다가.. 바닥에 떨어진 작은 빵조각을 찾아 입에 넣는다.

S#30. 구조본부. 식사동. 낮

며칠째 비가 이어지고 있다.

천막 위에 덧댄 비닐이 강한 비바람에 찢어질 듯 필적이고,
천막 아래에선, 진흙 뺨을 뒤집어쓴 구조인력들이 밥을 먹고 있다.
계란 후라이를 한 가득 들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세현.

세현 따뜻할 때 드세요.
최반장 아휴, 이러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좀 쉬세요.
세현 저희 남편 구하신다고 다들 고생하시는데.. 제가 뭐라도 해야죠.
 많이 드세요.

두 팔을 걷어붙인 채 열정적으로 일을 돕는 세현.
투투- 텐트 지붕이 물 무게를 못 이기고 찢어지자, 안으로 물줄기가 쏟아진다.
화들짝 놀란 사람들. 서둘러 자리를 옮긴다.
바닥에 계란 반숙이 떨어지자, 최반장이 얼른 줍는다.

세현 놔주세요. 다시 드릴 게요.
최반장 아휴, 괜찮습니다.

텐트에서 떨어지는 물줄기에 씻어서 한 입에 먹는 최반장, 기분 좋게 웃는데...
불안하던 텐트가 아예 반으로 갈라져 쓰러지자,
그대로 비바람에 노출되는 사람들, 밥 먹다 말고 난리도 아니다.

S#31. 구조본부 상황실. 밤

모두 잠든 심야 상황실.
깔깔이를 끼입은 당직 대원이 상황판에 적힌 날짜를 바꿔댄다.
'상황발생 6일차'

터널 속 두 사람 상황이 사진과 모형으로 상세히 묘사되어 있는 상황판.
그 아래, 부착된 자동차 모형물에서 실제 터널 안으로 오버랩 된다.
쿨룩, 쿨룩.. 기침소리가 들린다.

S#32. 터널 안. 정수차. 밤

암흑.. 기침을 내뱉으며 자고 있는 정수.
환풍기 너머 열린 신음소리가 들린다.

곧이어 미나차 쪽에 불이 켜진다.

미나(소리) 아저씨, ..아저씨..

..잠에서 못 깨어나는 정수.

미나(소리) ..아저씨..

미나의 목소리가 많이 힘들어 보인다.

한참을 부른 후에야.. 정수, 잠결에 무슨 소리가 들린다. 꿈인가...

그러고는 다시 자려는데... 번뜩, 눈을 뜬다.

미나(소리) ..아저씨..

이정수 예?!

정신을 차릴 사이도 없이 일어나자마자 앞차로 향하는 정수.

S#33. 터널 안. 미나차. 밤

도착하는 정수, 그런데.. 미나의 상태가 심각하다.

미나 (신음) ..사람들 오려면.. 멀었나요?

이정수 아.. 좀 걸린다고 했는데.. 오긴 분명 오거든요. 많이 힘드세요?

미나 아.. 옆구리가 넘 아파요. 막 찌르는 것 같이.. 아.. 숨도 잘.. 하아.. 하아..

후.. 후.. 숨 쉬는 것조차 버거운 미나.

정수, 미나 이마를 짚어보면.. 몸이 뜨겁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정수.

이정수 전화 좀 해볼게요. (자신의 차로 가려는데)

미나 (꺼져가는 목소리로) 죄송한데.. 물 있나요? 하.. 하..

이정수 ...!

순간.. 정수 자신도 모르게 머뭇거리는데...

미나 ..죄송해요. 제가 다 먹었죠..

흔들리는 정수 눈동자.. 눈을 질끈 감는다.

고개를 숙인 채, 미나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정수.

미나의 갈라진 입술 사이로 가냘픈 호흡이 힘들게 새어나온다.

미나 하아.. 하아.. 아.. ..아, 엄마..

정수, 결국.....

이정수 잠시 만요.

자신의 차로 돌아가는 정수.

S#34. 터널 안. 정수차. 밤

1/4 즈음 남은 생수병. 마지막 물이다.

이정수 후우-

나약한 이기심이 부끄럽기도 하지만.....뭐든, 괴로운 결정이다.
물병을 들고 미나에게 향하는 정수.

S#35. 터널 안. 미나차. 밤

차에 들어서며 애써 밝게..

이정수 다행이에요. 여기 물이 남았네요. 하하..

어색하게 웃으며 물을 여는데.. 이상하다.

이정수 ..미나씨? ..미나씨?

반응이 없다. 흔들어보면, 고개가 툭 떨어진다.
..죽었다.

이정수 !!!

순간, 뒤로 주저앉는 정수.
통- 떨어진 물병에서 잠시 물이 흐른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어찌 할 바를 모르는 정수.

이정수 아.. 아..

갑작스런 미나의 죽음에 일순 공황이다.

이정수 아.. 미나씨?

반응이 있을 리 없고...

이정수 아.. 아.. ..어떻게... 아...

말을 제대로 못 잇는 정수... 안절부절... 패닉...
몰려드는 두려움과 죄책감에 어쩔 줄 모르던 정수,

이정수 (눈물) ...미안해요...

피로워하는 정수...
..무거운 돌 밑에 깔려 있는 미나가 너무 답답해할 것 같다.
지금이라도 시멘트 덩어리를 치워주고 싶은 정수.
원망스러운 커다란 돌을 밀쳐본다. 하지만 꿈쩍도 않는 돌덩이.

이정수 (꿈..) ..제발 좀..

손바닥이 파이고 갈라져도 아랑곳 않고 힘을 쓰는데...
우지끈,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 같던 돌덩이가 들썩인다.
조금씩, 조금씩.. 옮겨지더니 결국.. 옆으로 밀쳐내는 정수. 쿵!
드디어 육중한 돌덩이에서 해방되는 미나.

이정수 (헉, 헉..)

..미나의 바깥 마른 입술을 물로 적서 준다.
정수의 입술에 피땀이 딱지 위로 다시 피가 흐른다.
하아, 하아.. 거친 호흡을 정리하는 정수,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미나의 늘어진 팔을 가지런히 모아준다.
손목에 묶어주었던 후레쉬가 대롱거린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불빛.. 후레쉬를 끄고는.. 미나 옆에 내려놓는다.
차마 다시 풀 수가 없다.
재킷을 벗어 마치 수의를 입히듯이 미나를 정성껏 감싸고는,
미나 소지품을 챙겨 돌아서는 정수.
이 모든 일들을 아는지 모르는지, 멀어지는 정수를 보며, 그냥 주인 옆에 엎드려있는 탕이.

S#36. 하도산 중턱. 밤

후드득- 기계음 대신 빗소리 가득한 하도산 굴착현장.
장비들 위로 굵은 빗줄기들이 때려댄다.

S#37. TV화면. 낮~밤

붕괴원인에 대한 보도가 이어진다.

A 뉴스앵커 어제 사망자가 발생한 하도터널 붕괴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관련 증거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화면에 숫 콘크리트(빨리 굳는 콘크리트) 사이에 박힌 락볼트(철근형태)가 보인다.

건설관계자A 터널 암석 붕괴를 방지하는 락볼트가 원래 단위당 10개씩 들어가야 하지만, ..이게 밖으로 보이는 것도 아닌데 누가 제대로 넣겠습니까.
이 정도 자재빼기는 거의 일상이고 관행인데...

건설관계자B (뒤에서 한마디 거든다) 솔직히 대한민국에 FM대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가 운이 없었던 거지..

이어지는 관련 공무원과의 인터뷰.

담당공무원 (음성변조) 서류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고요.

A기자 (어이없다) 서류만 보고 합격 판정이 내려지는 건가요?

담당공무원 (음성변조) 그런 건 아닌데.. 저희 인원도 부족하고..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무슨 범죄 집단으로 비춰지는 건,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구조본부상황실

뉴스를 보던 대경, 먹던 빵을 TV를 향해 집어던진다. 퍽!

시공회사 앞

퍽, 퍽, 퍽!

풍내건설 현관 유리창에 수십 개의 날계란들이 날아든다.

누런 액체가 흘러내리는 현관유리창.

시민단체들이 시위중이다.

‘풍내건설, 너희들은 살인자다!’ ‘이정수씨를 책임지고 살려내라’

S#38. 허름한 여관방. 밤

소란스러운 뉴스를... 참혹한 얼굴로 지켜보는 세현.

S#39. 터널 안. 정수차 + 하도산 시추현장 상황실(교차). 밤

콜록, 콜록.. 기침이 계속된다.

며칠 전에 비해 수척해 보이는 정수.

추위를 피해 옷가지들을 두른 채, 통화 중이다.

김대경 물은 얼마나 남았나요?

맨 아래 눈금에 살짝 걸려있다.

이정수 물 떨어지지 전에 구하러 오신다면서요?!

부쩍 날카로워진 정수의 말투.

김대경 (당황) 아.. 죄송합니다.

이정수 ..저 여기서 못나가는 거죠?

김대경 아닙니다.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작업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어제부로 100미터 넘어갔고 입구 쪽도 보강마치고 굴착 들어갔습니다. ..이정수씨, 지금 무슨 말을 드려도 위로가 안 될 줄 압니다만 반드시 이정수씨 구해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저희 꼭 갑니다.

이정수 ..미안합니다.

김대경 아닙니다. 저희가.. 후우-

잠시 침묵이 흐른다.

이정수 사람이 물 없이 얼마나 버틸 수 있나요?

김대경 ..일반적으로 7일입니다. 14일까지 버틴 기록이 있긴 하지만... ..빈 통에 소변 받아 두셨죠?

이정수 ...예.

김대경 소변은 무균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정수 드셔 본 적 있으세요?

김대경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수 ..제 아내는 잘 있나요?

김대경 예, 밖에 계시는 거 같은데 불러드릴까요?

이정수 따로 연락할게요.

김대경 ..정수씨 나오시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저희가 도울 게 있으면 준비해 놓겠습니다.

이정수 하고 싶은 거요.. ..문 열고 집에 들어가서 '여보, 나왔어.' 이거요.

깨진 룸미러에 붙어있는 딸 스티커사진을 보는 정수.

이정수 ..아이 있으세요?
 김대경 저 닳은 딸 애 하나 있어요.
 이정수 이쁘겠네요.
 김대경 ..뭘, 나름... 아, 밧데리 얼마 안 남았죠?
 이정수 47프로요. ..제 아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우- 통화를 마친 정수, 아내와 수진의 사진을 본다.
 잠시 후 핸드폰이 꺼지고.. 다시 암흑이 된다.

하도산 중턱 시추현장 상황실

핸드폰 끄는 대경 뒤로... 바쁘게 돌아가는 시추장비들...
 드드드.. 드릴이 구멍을 내고 있다.

S#40. 하도산 중턱 시추현장. 밤~낮

밤낮으로 불꽃을 튀기며 암석을 뚫는 드릴.
 하지만 열악한 환경에 속도가 더디다.
 철커덕, 체인이 끊어지기도 하고..
 드릴이 구멍을 내면, 그 안으로 토사가 다시 쓸려 들어가길 반복하고 있다.

S#41. 터널 안. 정수차. 낮

9일째.
 조르르르.. 쾅한 눈으로 생수병에 소변을 보는 정수.
 노란 액체에 거품이 보글보글 차오른다.
 ..환풍기 안에서 부스럭 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탱이가 오고 있다.
 정수, 오줌이 담긴 생수병을 잠그며..

이정수 오지 마라. 먹을 거 없다.

엥금엥금.. 이미 차로 들어선 탱이.. 짧은 꼬리를 슬쩍슬쩍 흔든다.

이정수 가라.

정수, 내쫓으려 하는데...
 잠깐.. 탱이의 입 주변에 뭔가 묻어있다. ..뭘지?
 탱이 입 주변에 묻은 까만 물질을 살피는 정수, 쿵쿵.. 냄새도 맡아보고..
 조심스레 맛도 보는데.. 헉! 동공이 팽창하는 정수.

S#42. 터널 안. 미나차. 낮

미나차 트렁크.

정수, 몸을 기울여 보면.. 좁은 틈으로 봉지 같은 게 보인다.

팔이 안 닿자, 서둘러 흠을 헤치는 정수.

손가락 끝에 봉지가 살짝 걸린다. 조금씩, 조금씩.. 끄집어내면..

반쯤 먹다 남은... 개사료 봉지!

이정수 !

거무튀튀한 색으로 된 각설탕 모양의 사료.

쿵쿵.. 흠을 털고 냄새를 맡아보고는 조심스레 씹어 보는 정수.

오드득 오드득, ..생각보단 괜찮다.

탱이, 자기 밥을 먹는 정수의 모습에 가우똥 거린다.

하늘이 내려준 선물인가...!

개 사료를 들고 돌아가던 정수, 뒤돌아 미나에게 고갤 숙인다.

S#43. 터널 안. 정수차. 낮

개 사료를 탱이와 나눠 먹는 정수.

이정수 너가 저번에 내꺼 먹었으니까 이번엔 나만 하나. 그리고 내가 나이가 더 많으니까 나 둘, 너 하나. 내가 몸무게가 더 나가니깐...

불공정한 배급을 끝내고 나란히 앉아 개사료를 먹는 정수와 탱이.

허겁지겁 먹어치우는 탱이에 비해 나름 맛을 음미하고 먹는 정수.

이정수 니들은 간을 안 하는구나.

포장지를 보면, 피부개선 사료라 크게 적혀 있고 하단에 성분이 표기되어 있다.

이정수 연어, 오리.. 해조류... 오, 오메가 쓰리도 있네. 허허..

사료를 먹고는, 오물오물.. 입안에 침이 고이게 하여 삼키는 정수.

쩍쩍.. 목이 탄다. 얼마 남지 않은 물을 조금 마시면, 탱이가 정수의 다리를 긁어낸다.

물병을 바라보는 탱이.

이정수 (아깝다.. 하지만..) 그래, 함 준다.

손에 물을 따라 주면, 탱이가 핏는 간지러운 느낌이 예전과 달리 그리 싫지 않다.
탱이가 딱다 흘리면, 얼른 받아먹는 정수.

이정수 어허.. 너 이 귀한 걸 흘리면 어떡해.

물 묻은 손바닥을 핏고는 두리번두리번..

이정수 (그러다 문득) 야, 이리와 봐.

자신의 몸으로 탱이의 시야를 가리고는, 개사료를 트렁크 안에 몰래 넣는 정수.

이정수 (탱이가 보려하자) 저기 봐. 저기. (뚜껑을 닫고는) 못 봤지?

아는지 모르는지 커다란 눈만 꺾뻑거리는 탱이, 목에 감긴 벨트가 답답해 보인다.

이정수 이거 풀자.

탱이 목에 감긴, 핏음 방지 목걸이를 풀어준다.

이정수 핏어 봐. 멍멍.

이 양반이 무슨 말하나.. 가우똥 쳐다보는 탱이.

이정수 까먹었나? 따라해 봐. 집중하고. 멍. ..멍. (혹시나..) ..바크, 바크.

여전히 반응이 없고.. 정수, 목걸이를 살펴보다가 괜한 호기심에 목에 대보고는..

이정수 (살짝..) 아아.. (아무 반응이 없자 좀 더 크게) ..멍.

순간, 찌릿!! 놀란 정수, 반사적으로 몸이 뒤로 물러나는데..

덜컹- 문짝이 떨어져나가나 싶더니..

과광! 와르르, 벽이 무너져 내린다.

챱싸게 시트 밑으로 몸을 낮추는 정수.

놀란 탱이도 무슨 일인가 쳐다본다.

이내 조용..

놀란 정수.. 조심스레 후레쉬를 비춰보면...

..떨어져나간 문짝 밖으로 빈 공간이 생겼다.

이정수 !!!

서너 평 남짓한 공간.

또 하나의 환풍기가 마치 기둥역할을 하며 널따란 콘크리트더미를 떠받들고 있다.

미어캣 마냥 고개만 삐죽 내밀고 주변을 살피는 정수의 얼굴에 두려움이 가득하다.
한참동안 이상이 없자...

하나론 부족한지.. 마치 쌍권총처럼 후레쉬 두 개로 빈 공간을 살피며...

한발두발, 마치 인류가 달에 첫발을 디디듯 조심히 내딛는 정수.

얼마 만에 디더보는 땅인가...

오랜만에 허리를 펴보는데, 두둑- 소리가 장난이 아니다.

한 쪽 벽에 글씨가 희미하게 보인다.

시커먼 분진을 닦아내면, 비상전화와 소화전 알루미늄 덮개.

덜경, 비상 전화함을 열어보면.. 폴색- 이는 길은 먼지뿐.. ..안은 비어있다.

이번엔 소화전 호스를 꺼내어 밸브를 돌려보는데..

물 대신 커다란 지네 한마리가 쏙살같이 튀어나온다.

놀라 엉덩방아를 찧는 정수.

그사이 돌 틈 사이로 숨어버리는 지네.

지네가 사라진 돌 틈에 코를 대고 쿵쿵거리던 탱이가 앞발로 굽어대자,

돌 하나가 굴러 떨어지고... 그 뒤로 작은 구멍이 드러난다. ..뭘지?

정수, 두 개의 후레쉬를 그곳에 집중하면, 무너진 암석들 사이로.. 구멍이 뚫려있다.

허리를 숙여 구멍 안을 들여다보는 정수...

무너진 구조물들 틈 사이로 3-4미터 남짓 이어지는 구멍..

몸을 납작 엎드리면 들어갈 만한 공간이다.

어디로 이어지는 건지...

이정수 (구멍 안을 향해) 어이.. 어이..

괜히 한번 소리를 내어본다. 구멍 안은 고요한데...

스스스.. 등 뒤에서 소리가 들린다.

탱이가 한쪽 구석에 응가를 해놓고 뒷발차기를 하고 있다. 저놈의 새끼...

구멍을 뒤로하고 일어서는 정수, 탱이의 응가 위로 돌탑을 쌓아 흔적을 가려버린다.

S#44. 구조본부막사. 화장실. 낮

화장실에 들어오는 대경, 시원하게 소변을 보다가 갑자기.. 멈춘다.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버리고는, 변기 칸으로 들어가는 대경.

또르르- 종이컵에 소변을 받는다.

대경의 얼굴이 사뭇 진지하다.

S#45. 터널 안. 정수차 + 하도산 종턱 시추현장(교차). 낮

탱이가 다리를 들고 오줌을 싸고 있다.

입술이 바짝 말라있는 정수, 흐르는 탱이 소변을 지켜본다.

이정수 ..그래도 니걸 먹을 순 없지.

차량 전원을 넣어 시간을 확인하고는, 핸드폰을 켜는 정수. 대경과 통화한다.

이정수 얼마나 봤나요?

김대경 여기 지반이 단단해 더디긴 하지만 열흘 안으론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터널 입구 쪽에서도 보강작업 마치고 오늘부터 굴착작업 들어갑니다.
정상 쪽이 더 빠를 것 같은데.. 어쨌든 둘 중 하나로 분명 나오 실 겁니다.

이정수 ..열흘..

떨어져 나간 차량 까만 문짝에 철사로 긁어 새긴 달력.

열흘째 되는 날짜를 찾아 동그랗게 표기하는 정수.

끼이익- 철판이 긁히는 소리에.. 얼굴을 찡그리는 탱이.

김대경 아, 그리고.. 저 소변 먹었습니다.

이정수 아니, 대장님이 왜...

김대경 제가 해보지도 않은 걸 권한다는 게 좀 죄송해서...
근데.. 코 막고 드시면 먹을 만합니다. 차면 더 좋을 것 같구요.

이정수 아... 예.. 그것 참.. 힘이 되네요.

통화를 마친 정수, 입이 바짝 타들어온다.

절뚝절뚝, 노란 생수병 쪽으로 향한다.

허벅지 상처가 굵아 걸음걸이가 불편해졌다.

돌 틈 사이에 둔 두 개의 노란 생수병 중 더 차가운 것을 골라 뒷좌석에 걸터앉는다.

절로 얼굴이 찡그려진다.

호흡을 멈추고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뒤로 젖히는 정수.

목 안에 쏟아 부으려는 순간.. 멈칫!

다시 눈을 뜨는 정수, 후레쉬를 들고는 소리죽여 주변을 수색한다.

모든 신경을 청각에 집중하는 정수. ..고요한 터널 안..

잠시 후, 아까와 같은 청아한 소리가 들린다. 푹-

확- 소리 난 방향으로 후레쉬를 향하면.. 무너진 콘크리트 더미 사이로...

...천정 구석에 매달린 작은 물방울 하나가.. 조금씩, 조금씩.. 아주 조금씩 커지고 있다.

이정수 !!!

절뚝절뚝, 물방울로 향하는 정수, 돌 틈사이라 잘 닿지 않는다.
그 사이, 똑- 바닥으로 떨어지는 물방울.
이런... 하지만 그 자리에 또다시 작은 물방울이 맺힌다.
이번엔 돌 하나를 딛고 올라서서는 돌 틈 사이로 필사적으로 팔을 뻗으면,
한참 지나.. 모이는 물방울 하나..
부들부들.. 까치발로 서있는 정수의 다리와 팔에 쥐가 날 지경이다..
하지만 놓치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버티는데.. 똑- 떨어지는 물방울,
이번에도 정수 손가락을 아슬아슬하게 비껴 떨어진다.
속이 타는 정수.. 서둘러 생수병에 담긴 오줌을 비우고는
돌을 한 단 더 쌓아 올려, 비틀비틀 올라서서는 생수병을 돌 틈사이로 끼워 넣는다.
이리저리 생수병을 옮기며, 마지막까지 낙하 위치를 맞추려 애쓰는데..
쭉- 들어가는 물방울. 골인-
하아- 절로 웃음이 난다.

며칠 동안 쏟아진 비로 인해 잔뜩 물을 머금은 하도산이
굴 안으로 물을 내보내고 있다.

S#46. 터널 안 + 구조본부상황실. 낮

핸드폰으로 터져 나오는 정수의 목소리.

이정수 여보, 나 물 먹는 거 알지? 나 물 먹고 있어. 하하.

정수의 기운 찬 목소리에.. 세현의 얼굴에도 미소와 눈물이 교차한다.
전화를 끊는 세현, 오랜만에 시원하게 물을 마시던 대경에게..

세현 (홀쩍) 오줌 드셨다면서요. 얼마나 드셨어요?

김대경 (컱.. 발개진다) ..종이컵으로 하나...

자판기 컵을 지나, 툭 사이즈 종이컵 아메리카노를 먹던 강단장을 가리킨다.

강단장 (웁!) 너 먹어라.

놀림을 받는 대경, 그래도 즐겁다.

S#47. 터널 안. 정수차. 낮

빨간 커버를 벗겨낸 자동차 후미등이 밝히는 공간엔

완치되어, 대학에서 웃음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하루에 한 번쯤은 크게 웃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정수, 꺾다 말고 갑자기 ‘하하하하하’ 웃어대더니... 다시 축... 늘어진다.

이정수 배고파. 괜히 힘 뺐다.
디제이(소리) 내일쯤이면 이정수씨 계신 곳까지 도달한다고 합니다.
 이 방송의 애청자가 되신 이정수씨, 나오시면 꼭 한번 초대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어느 분이 이런 말 하셨지요. ‘대한민국에 FM대로 되는 게
 어디 있냐고.’ 하지만 있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진행되는 94.2
 FM 라디오입니다. 이동진이었습니다.
이정수 (점잖은 목소리와 달리 어이없는 농담에) ..이 양반 영 실없네..

수염이 대충 정리되고.. 깨진 거울을 가까이 들여다보는 정수. 여전히 초췌한 모습.
터널에 들어올 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인다.

이정수 우리 수진이 놀라겠다.

절뚝절뚝, 차 밖으로 나가는 정수.
예전에 비해 많이 느려진 몸동작으로(마치 주유소 할아버지처럼...)
찢어진 공을 그릇 삼아 담아 놓은 물에 얼굴을 씻는 정수.

S#51. 하도산. 시추현장. 새벽.

동 트는 새벽.
하도산 시추현장에 설치된 천막 안에서 초조히 기다리던 세현,
딸 수진에게 문자를 보낸다.
‘엄마가 내일 아빠 데리고 갈게.’
곧이어 답신 ‘강아지는?’
피식, 잠시 웃어보지만.. 미소사이로 여전히 불안감이 가득한 세현.

그사이, 뒤쪽 기다란 쇼파에서 쪽잠을 자던 조기자를 동료기자가 와서 깨운다.

동료기자 선배님, 선배님.
조기자 (벌떡 일어나며) 나왔어?

세현, 황급히 돌아보지만..

동료기자 그건 아니고, 이번에 흙 퍼 올리는 게 마지막이 될 것 같다는데요.

세현이 잠시 들뜬 가슴을 진정시키는 사이, 밖으로 나가는 조기자.
시추기 주변에선 벌써부터 많은 취재진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다.
조기자, 수첩달력에서 날짜를 세더니 아쉬운 듯한 얼굴이다.

조기자 (동료에게) 하루만 더 있다 나오면 기록 깨는 건데..
삼풍 때 기록이 17일이었잖아... 타이네, 타이..
김대경 (어이없다) 기회 되시면 기자님이 세계기록에 한번 도전해보시던지요.

아리고 지나가는 대경.

동료기자 세계기록은 얼마야?

헛소리하는 사이, 마지막 흠을 퍼 올릴 캡슐이 내려가고 있다.

S#52. 터널 안. 정수차. 새벽

세상을 맞이하려는 듯, 후레쉬를 잔뜩 켜 환하게 밝히고 있는 정수.

김대경 곧 도착합니다. 기분 어떠세요?
이정수 하아.. 심장이 뛰는 데요. 제 아내도 거기 있어요?
김대경 예, 나오시면 제일 먼저 만나 뵈 겠습니다.
천정에 집중하고 계시다가, 뭔가 떨어진단 싶으면 피하세요.
지름 60센티 정도니까 조금만 움직이시면 될 겁니다.

쿵쿵쿵, 심장이 요동친다.
천정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정수.

S#53. 하도산. 시추현장 + 터널 안(교차). 동틀 무렵.

시추기에서 땅속 흠이 올라온다.
바닥에 쏟아 내면, 부러진 환풍기 날개조각.. 노란 페인트가 묻은 아스팔트가 섞여있다.

시추팀원 (양손에 들고는) 환풍기 날개에, 아스팔트까지 나왔으면..
시추장 ..터널 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거잖아.

시추장, 의아하다는 얼굴로 대경을 본다.
정수와 통화중이던 대경, 당황스런 얼굴이다.

김대경 ..혹시 드릴이 보이지 않았나요?

이정수 아뇨.
김대경 ..환풍기 두 개다 그대로 있어요?
이정수 예.. 왜요?

대경, 장탄식...

김대경 제가 확인하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딸깍)

대경, 앞이 캄캄하다. 뭐지, 어떻게 된 거지..
머릿속이 새하얘진다.
웅성웅성.. 불안감이 감도는 현장.
곳곳에서 절박한 목소리가 외쳐진다.
'설계도 가져와봐! 설계도!', '여기 시공사관계자 있어요?'

설계도 앞에서 웅성웅성..
여러 도면을 크로스 체크하는 사람들.
'맞잖아!',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시공사 아직 안 왔어?!'
패닉.. 모두들 두려움 가득한 얼굴이다.
그러던 중, 노트북을 들고 뛰어오는 누군가.
동영상 하나가 틀어진다.

강단장 이거 뭔데?
도로공사직원 터널 개통 당시 화면인데.. 보신다고 해서요.

터널 개통 때 찍힌 영상이다.
천정에 환풍기가 보인다.

시추장 그래, 두 번째. 여기잖아.
김대경 (뭔가 이상하다) 환풍기 몇 군데 설치 됐다고 했죠?
도로공사직원 (설계도를 가리키며) 7군데라고 나와 있잖아요.

동영상을 보던 대경.

김대경 하나가 없어. 6개야. (설계도를 가리키며) 이거 안 맞아. 씨발..

'뭐라고?!' 시끄러워지는 현장.

강단장 뒤로 돌려봐.

화면을 거꾸로 돌린다.

강단장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곧이어 입구다. 확실히 6개다.
1번이 있어야 할 자리에 아무것도 없다.
일순 공황에 빠지는 사람들.

김대경 (설계도를 짚으며) 우린 세 번째라고 여기 봤는데..
 실제론 (네 번째를 가리키며) 여기...

강단장 이 설계도가 잘못된 거라고? 말이 돼?! 말이 되냐고!
 어떤 개새끼가 이따위 설계를 가져왔어!

모두들 고개를 숙인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던 환풍기관계자.

환풍기관계자 환풍기 설치기사 쪽 말이 총 12개를 두 조씩 한 세트로 해서,
 모두 6군데 설치 된 거 맞다고 합니다.

강단장 (미치겠다) 그걸 왜 이제..

할 말을 잃은 사람들..
상황실천막에서 대기하던 세현, 밖으로 나온다.
너무나 어이없는 상황에 휘청- 간신히 중심을 잡는다.
절망스런 세현을 향해 터지는 카메라 플래쉬...

강단장 그럼 이정수씨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는 거야?

설계도를 보면, 두 환풍기 사이 거리가 150미터로 적혀있다.

시추장 그 거리는 여기서 못가요.

강단장 그럼 처음부터 다시 파야 되는 거야?!

지금까지 판 곳보다.. 훨씬 더 높은 산봉우리 방향이다.

시추장 아니면, 터널 입구 쪽을.. (말을 제대로 못 잇는다)

강단장 (헬멧을 집어던지며) 아 씨발..

대경의 핸드폰이 다시 울린다. 정수 전화다.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고..

이정수 (조심스런 목소리다) 언제 내려오나요?

대경, 말을 못하겠다.

김대경 죄송합니다.
 이정수 예?
 김대경 저희가.. 다른 쪽을 봤습니다.
 이정수 무슨 말이죠?
 김대경 위치를 혼돈해서 다른 곳을 봤습니다.
 이정수 다른 곳ைய요..?
 김대경
 이정수 왜 그런...
 김대경 ..정말 죄송합니다.

정수, ..두렵다.

이정수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대경 ..중단했던 터널 입구 쪽 작업을.. 다시 진행하고...
 이정수 ..그리고요?
 김대경 ...위에서 굴착을 다시..
 이정수 ..처음부터요..?
 김대경 ..최대한 빨리...
 이정수
 김대경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이정수 허... 으아아아-

여태껏 눌러 왔던 모든 것들이 폭발하는.. 정수의 절규..
 정수의 목소리도, 얼굴도.. 모두 터질 것만 같다.

터널 안

들썩이는 정수의 어깨.. 떨어지는 핸드폰..
 잔뜩 부풀었던 기대가 일순 모두 무너졌다.
 힘없이 몸을 기대는 정수, 애써 진정하려 해도 뭔가 자꾸 울컥거린다.
 후우- 후우- 갑갑하다. 가슴이 조여 온다.
 정수,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다.
 차 밖으로 나와 입을 벌려보지만, 하아.. 하아..
 하지만 점점 숨이 가빠오는 정수.
 숨을 잘 못 쉬고 있다. 패닉이다...
 두려움 가득한 정수의 표정.
 별게 진 얼굴엔 식은땀이 순식간에 솟는다.

따르릉-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이 계속해서 울러댄다.
 배터리 부족 경고등이 들어온 핸드폰...

이정수 하아.. 하아...

손을 뺀채 핸드폰을 들면, 아내다.

세현 오빠, 괜찮아?!

이정수 헉, 헉.. 나 숨을 잘 못 쉬겠어.

세현 왜 그래? 오빠!

이정수 하아.. 하아.. (호흡이 거칠다)

세현 오빠, 진정해. 의사선생님, 바꿔줄게. (주변 사람들에게) 여기 좀 도와주세요.
오빠가 이상해요. 빨리요!

현장서 대기하던 의료진이 달려온다.

이정수 아니야, 안 돼, 나 배터리 없어. 이거 마지막 통화야... 마지막.

수진이 있어? 수진이? 수진이 바꿔줘. 빨리!

세현 수진이 여기 없잖아. 오빠, 정신 좀 차려봐.

배터리 경보음이 계속 울러댄다.

이정수 헉, 헉.. 나 이제 여기 더 이상 못 있겠어. 헉.. 나 이제 못 버티.

세현 오빠, 정신 차려. 버티야 돼.

이정수 왜 나한테만 버티라 그러는 거야! 나 이제 못하겠어. 여보! 여보! 듣고 있어?

세현 어, 말해.

이정수 당신.. ..수진이랑 잘 있어야 돼. 어? 잘 살아야 돼?

세현 무슨 소리하는 거야...

이정수 수진이 잘 키워줘. 알았지? 미안해. 세현아, 잘 있어! 나 이제...

정수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말..

사람들,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세현 그래, 그렇게 해. 그냥 죽으라고. 죽어!

놀라 쳐다보는 사람들.

세현 그런데 당신 죽어버리면, 나도! 수진이도! 다 죽어 버릴꺼야. 어?!

당신 죽으면 우리 다 같이 죽는 거야. 알았어?! 이거 그냥 험박 아니야.

세현의 섬뜩한 말에 멈칫하는 정수.

세현 아니면, 우리 위해서라도 살아남으라고. 약한 소리, 죽는 다는 소리하지 말고
버티란 말야... 버티... 제발 살아남아. 오빠, 제발.....

하.. 하.. 서로 거친 호흡만이 교차한다.
삐삐삐, 배터리 최종경고음이 들리더니... 딱 끊기는 전화.

이정수

말을 하려다 뱉지 못한 정수.
..끝이다. 적막...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다.
정수, 걱정적이었던 호흡이 잦아들고 있다.
툭, 약이 다한 후레쉬 하나가 꺼진다.
지하 180 미터 아래.. 서서히 어둠속에 갇히는 정수.

하도산 시추현장

누구하나 선뜻 입을 열지 못하는 구조현장.
하아- 하얀 입김만이 가득하다.
비틀.. 천막으로 향하는 세현, 폭- 쓰러진다. 황급히 달려오는 사람들.

S#54. 구조현장 일대. 몽타쥬. 새벽~밤

계속해서 내리는 눈에 산 전체가 묻혀간다.
사람들이 빠져나가.. 썰렁해진 구조현장.
한적한 취재단, 봉사단 막사 위에도 눈이 하얗게 쌓여간다.

눈 쌓인 비탈길.

강관을 신고 터널구조현장으로 향하는 트럭들의 바퀴가 헛돌고.. 미끄러진다.
그 옆에서 눈을 치우느라 안간힘을 쓰는 대경과 대원들의 모습.

터널 남쪽 입구.

기다란 강관이 어두컴컴한 터널 안으로 운반되는 가운데..
지친 인부들의 모습 뒤로 통신사 증폭안테나도 철수되고 있다.
떨어지는 통신사의 당찬 문구 위로 눈이 하얗게 쌓이며.. 천천히 암전.
검은 화면에서 잠시 후,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린다.

“이정수씨는 살아있을까요?”

S#55. TV 토론회장면. 낮

서서히 밝아지면, 어두컴컴한 터널 입구 사진을 배경으로 TV토론회가 진행 중이다.

패널A 칠레 광부 같은 경우 69일 만에 구조된 바가 있지만 거긴 33명이 함께 있으면서 음식물도 공급되는 상황이었구요, 이번 같이 홀로 먹을 것 없는 상황에서의 공식적인 생존최장 기록은 19일입니다. 물론 인간이 물만으로 60일 이상 버틸 수 있다는 연구도 있고 심지어 1년 가까이 생존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극도의 불안감, 공포, 추위 등 불리한 여건이 겹쳐진다면 그건 무의미한 숫자이구요, 또 몸에 상처라도 있으면 더욱 힘들어집니다. 외상이 에너지 소모량을 많이 올리거든요.

사회자 그럼 부정적이다.. 는 말씀이신지요.

패널A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기는 합니다만 상황이라는 게 항상 변수가 있는 거라서 여기서 제가 뭐라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 오늘이 이정수씨가 고립된 지가 23일째입니다. 연락이 두절된 지는 이제 일주일이 됐구요. 지난 일주일 동안 이정수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린다는 것이.. 이게 참.. 통계와 의학이 아니라.. 어떻게 믿느냐의 문제인 것도 같습니다만.. 그렇다면 언제까지 그 믿음이 유효할지 그 또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S#56. 터널 안. 정수차. 낮

어두컴컴한 터널 안.
 죽은 듯 앉아있는 정수의 뒷모습. 미동도 없다.
 지난번 사라졌던 지네가 정수 쪽으로 슬금슬금 기어가고 있다.
 지네가 손등에 올라도 반응이 없는 정수.
 손가락 사이로 들어가는데... 순간 움켜쥐는 정수.
 잠시 후 다시 손을 펼치면.. 짓이겨진 지네.
 탱이가 납작 눌린 지네에 코를 대보고는 다른 데로 가버린다.
 지네를 가만히 바라보는 정수.
 며칠 사이, 더욱 덥수룩해진 수염. 쾅해진 눈....
 정수, ..지네를 입에 넣는다.
 우물우물.. 무표정한 얼굴로 씹어대는 정수.
 그 위로 흘러나오는... 아내 편지를 읽어주는 라디오 디제이의 목소리.
 차량계기판 주유바늘은 바닥을 가리키고,
 불안하게 깜박이는 LED불빛이 차량 배터리마저 얼마 남지 않음을 알려주고 있다

디제이(소리) 요즘 수진이가 부쩍 사는 게 힘들다고 그래.
 (멘트) 아니 수진이가 몇 살인데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다시 편지) 유치원에서 공부하는 게 너무 싫대. 요새 더하기를 배우는데, 힘들어하네. 당신 닮아서 문과스타일인가 봐.
 오늘은 갑자기 자기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가 가장 편했던 거 같다고 하도 어이없는 소리를 하길래, 그럼 다시 뱃속으로 들어가던가 했더니,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내가 너무 커버렸잖아’, 그린다.

배시시 미소 짓는 정수, 보온을 위해 옷 사이에 넣은 시트 충전재가 피부를 자극하는 듯, 계속해서 긁어대면 약해진 피부가 벌겍게 일어난다.

그 순간, 푸드득- 시동이 꺼진다.

라디오도 끊긴다. 기름이 다 떨어졌다.

정수, 서둘러 차량 전원을 다시 넣어보면.. 겨우 켜지는 라디오. 전력이 불안정하다.

다시 들려오는 디제의 목소리.

디제이(소리) 오늘은 더하기를 힘들어하는 수진 양과 정수씨를 위해서 저희 방송에서 들을 수 없던 가요가 나갈 예정이니까 클래식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놀라지 마시고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수씨, 들으세요.

가요가 흐르자, 분명 신나는 노랜데.. 눈물이 촉촉해진다.

S#57. 터널 입구. 휴식동 밖 + 안. 낮

쪼르르- 지친 얼굴로 자판기 커피를 뽑고 있는 세현.

최반장, 세현을 보자 애써 밝은 표정을 짓는다.

최반장 시청에서 공청회 한다고 다들 가던데, 안 가셨어요?

세현 예, 거기 가봤자.. 뭐... (커피를 꺼내들며) 드릴까요?

최반장 감사합니다.

기분 좋게 받아 들고는 휴게실 안으로 들어서는 두 사람.

안에선 웃음소리가 크게 들린다.

예능프로그램을 보며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

세현이 들어오자, 약속이라 한 듯 웃음을 그친다.

모두들 세현을 불편해하고 있다.

세현 (머뭇머뭇) ..전 그냥 밖에 있을게요.

서둘러 나오는 세현.

S#58. 시청 강당 + 정수차(교차). 낮.

단상엔 각계 전문가들이 구조작업에 대한 토론 중이고

객석엔 기자들과 일반인들이 지켜보고 있다.

발표자 뒷줄에 앉아 구시렁거리는 대경.

김대경 우린 여기 왜 불렀대요. 그냥 일어나 하게 냅두지..
 (계속되는 불만) 자리도 어색하고.. 이게 뭐하는 짓인지...

옆에 있던 강단장, 누가 들을까 눈치를 살핀다.
그사이 시추장이 차트를 펼쳐놓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시추장 이정수씨 계신 곳까지 남은 게 약 200미터 정도고..
 하루에 15미터씩 전진하면.. 앞으로 보름 후면 다다를 것 같습니다.
진행자 보름이라... 오늘이 25일째니까, 총 40일 정도 되겠네요. 40일...

cut to

2터널관계자 제2터널 공사가 중단된 지 25일이 지났습니다. 이쪽은 하루에 15억씩
 적자를 보고 있고요. 피해액이 현재까지 500억이 넘습니다.
 이거 다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진행자 2터널 공사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시추장 폭약을 이용한 발파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정수씨 있는 곳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분명 있습니다.

2터널관계자 (다소 흥분)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매몰자 탐지기 집어넣어서
 수차례 확인해 봤잖아요. 나온 결과 있습니까?

시추장

2터널관계자 솔직히 눈치 보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저번에 도롱뇽 하나 때문에 터널
 공사 중단됐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그때 국가경제가 얼마나 손해 본 줄
 아십니까? 도롱뇽 몇 마리 때문에...

지켜보던 대경. 갑자기 끼어들다.

김대경 저기요, 이정수씨는 도롱뇽이 아니라 사람인데요.. 저기 지금 터널 밑에 있는
 분은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구요. 사람...

2터널관계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는 아니잖아요.

김대경 아니, 그렇긴 한데.. 우리가 자꾸 까먹는 거 같아서..
 저기 사람이 있다는 걸요...

S#59. 터널 안. 정수차. 낮

어느 한 곳에 고정된 정수의 시선, ..따라가 보면.. 배기가스를 내보내던 구멍이 보인다.

한참을 바라보던 정수, 무슨 생각에 선지 구멍을 막았던 돌들을 하나씩 걷어낸다.

곧이어 드러나는 구멍...

후레쉬를 든 정수, 바닥에 엎드려 암석 사이에 난 구멍 안을 들여다본다.

그동안 차량 배기가스를 내보내던 구멍 안을 이리저리 비추는 정수.

어디까지 이어지는 건지.. 바로 3-4미터 앞에 막혀있는 것도 같고..
불안해 보이는 것이 언제라도 무너질 것 같다.
하지만 더 이상 마냥 기다릴 수만 없기에.. 결국 구멍 안으로 들어가 보는 정수..
꿈- 몸을 최대한 낮춰 기다시피 들어간다.
쿨럭, 쿨럭.. 구멍 안엔 배기가스의 흔적이 남아 있는 듯 매캐한 냄새가 정수를 괴롭힌다.
정수의 다리마저 구멍 안으로 사라지자.. 킁킁거리는 탕이 ..끄으응..

구멍 안

사람 몸 하나 들어갈 만한 통로를 힘들게 기어가는 정수.
사방이 깨진 암석이라 이리저리 찢리고 까이고...
허벅지에 덧난 상처가 쓸릴 때마다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을 위해.. 단 한 뼘이라도 나아가보려는 정수..
하아..... 하아..... 점점 느껴지는 정수의 손놀림.

S#60. 터널 안. 구조현장. 낮

윙- 날카롭게 돌아가는 쇠톱. 파이프를 자르다 과열됐는지 덜덜거린다.
전원을 끄는 최반장, 장비를 멈추고 체인의 볼트를 다시 단단히 조인다.
그사이 잠시 작업을 멈추는 인부들, 연이은 구조작업에 지친 듯, 투덜댄다.

신참인부 언제까지 해야 하나 모르겠네.
고참인부 그러게.. 죽은 사람 하나 꺼내자고 이게 뭘 것인지...

장비를 수리하던 최반장, 다그친다.

최반장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고참인부 아니 뭐, 다들 가망 없다고 하잖아. 가족 눈치 봐서 말을 못해서
 그러지.. 솔직히 반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잖아? ..아니야?
최반장 아니예요! (돌아서려다) 어디 가서 그딴 소리하지 마요, 알았어요?
인부들 (못마땅하지만) ..예.

스위치를 다시 켜고 돌아서는 최반장.
윙- 장비가 돌아가고.. 인부들이 파이프를 톱날에 들이대는데...
드르륵-- 장비가 말썽을 일으킨다.
아, 씨 또 뭐야... 신참, 짜증난 얼굴로 정지시키는데...
손바닥만 한, 톱니 하나가 부러져있다.

신참인부 어라?!

그 순간, 뒤에 있던 최반장이 고목 넘어가듯 그대로 쓰러진다. ..뻑!

최반장 복부에 박힌 부러진 쇳날.

S#61. 시청 강당. 낮

공청회장 객석에서 고성이가 오가고 있다. 어수선한 분위기.

참석자A 아니, 여기다 정부를 왜 갖다 부칩니까? 뭐 일만 나면 맨날 나라 탓만 하고..

참석자B 그럼 이게 잘하고 있는 겁니까?

참석자A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그럼 당신들은 뭘 했는데요?

맨날 입만 나불나불 대고. 나가서 돌이라도 하나 날라요!

진행자 (마이크에 대고) 자, 진정하세요. 우리 모두 성숙한 시민의식 부탁드립니다.

공청회를 취재하던 기자들에게 일제히 문자가 날아든다. 웅성웅성..

누군가 단상 패널들 뒤로 다급히 들어온다.

귀엣말로 전해 들은 장관.

장관 거 봐.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급히 자리를 뜨는 장관.

대경, 무슨 일인가 싶은데.. 전달되는 문자메세지.

‘사망자 발생.’

S#62. TV화면 + 기사식당. 낮

뉴스화면(사고현장-장례식장)

“안타깝게도 또다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이정수씨 구조현장에서...

..25일째 계속되는 구조 강행군에...”

기자의 목소리 위로, 터널 입구 최반장 사고현장..

..최반장 장례식장이 연이어 보인다.

장례식장

비통한 최반장 장례식장 모습.

분향실에선 노모가 정부 관료들로 보이는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정수 딸 만한 아이가 수많은 카메라에 낫설어 할머니 치마 뒤에 숨은 채

고개만 살짝 내밀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다.

멀찍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바라만 보는 초췌한 세현의 얼굴.

기사식당

손님들의 주문소리에, 종업들의 소리에.. 어수선한 기사 식당 안.
TV뉴스가 소란함을 더하고...
다들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라 음식을 입에 넣기 바쁘다.

택시기사A (고단하다) ...그만 할 때도 되지 않았나..

택시기사B ..적당히 좀 하지. ..가뜩이나 우울한데, 맨날.. 아저씨, 저것 좀 끊시다.

지난함에 피로누적을 느끼는 사람들.
그릇을 치우던 종업원, 리모컨을 찾아 TV를 꺼버린다.
뉴스가 꺼지고.. 까만 모니터만 남는다.

S#63. 터널 안. 정수차. 낮

TV의 검은 화면에서.. 오버랩되는 정수의 멍한 얼굴.
깊은 주름들 사이로 시커먼 콘크리트 가루들이 자리 잡았다.
한쪽 바닥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탱이 물통엔 살얼음이 덮여있다.

별경계 부풀어 오른 허벅지 상처에서 고름을 짜내는 정수.

이정수 으으으...

굳게 다문 입에서 신음이 절로 새어 나온다.
화장지를 적셔대는 고름덩어리.
후- 후- 땀수룩해진 턱수염 사이론 연신 입김이 새어나오고..
차량 부동액을 드는 정수. 깨알같이 적힌 제품성분에 '에틸렌...' 이 쓰여 있다.
딱히 에틸렌은 아니다. '에틸렌글리콜...'

이정수 (확신이 안서지만..) ..에틸렌.. ..알콜.. 이겠지..

머뭇머뭇.. 일단 화장지에 묻혀서 상처를 닦아본다. ..새파랗게 물드는 화장지.
가우똥.. 괜찮은지.. 이번엔 병째 상처에 들이붓는 정수.
상처부위를 파고드는 파란 부동액..
으으- 얼굴이 절로 일그러진다. ..아프다. 이제 그만... 후우---
부동액을 내려놓자, 옆에 놓인 후레쉬 불빛이 파란 부동액 PET병을 통과하며
주변을 파랗게 일렁거리게 한다. 마치 물속 같은 느낌이다.
초점 없는 눈동자.. 잠시 호흡을 고르고는..
절뚝절뚝.. 느린 발걸음으로 물병을 챙기러 가는 정수.
물방울이 떨어지던 샘터엔 고드름이 달려있고, 이로 인해 물이 잘 모이지 않는다.
얼마 안 가 모두 얼어붙을 태세다.
톡- 탱이 물통 위 살얼음을 깨뜨리는 정수.. 좀 더 부어 주고는

반쯤 든 물병을 들고 다시 굴 안으로 들어간다.

S#64. 구조본부. 식사동. 낮

식당 안 공기가 무겁다.
작업인원들의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하다.
한쪽 구석에서 묵묵히 반찬을 만들던 세현.
따르릉- 친정엄마 전화다.

세현 엄마! 애 보느라 힘들지? 미안해.
엄마(소리) 아이구, 니 몸 생각이나 해. 밥은 좀 먹니?
세현 응. 나 잘 먹어.

대답과 달리 수척하기만 한 세현.

세현 (수화기 너머 딸 소리가 들린다) 수진이 유치원 안 갔어?
엄마(소리) 응.
세현 왜? 어디 아파?
엄마(소리) 아니, 그게...
세현 왜? 뭔데...
엄마(소리) 유치원 애들이 엄마들이 하는 이상한 얘기를 듣고 와서
 수진이한테 뭐라 그랬나 봐.
세현 (표정이 굳는다) ..뭐라고.
엄마(소리) ..수진 아빠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렇게 됐다고.
 내가 하두 기막혀서 애들 엄마들한테 한마디 했다.

눈을 질끈 감는 세현.. ..이런 일까지... 너무 힘들다...
세현이 통화하는 사이, 노인 하나가 절룩이며 다가오고 있다.

세현 엄마, 수진이 유치원 보내지 마. 내가 갈 때까지..

세현에게 다가오던 노인, 느닷없이 조리대에 놓인 날계란을 던진다. 퍽-
얼굴에 맞는 세현. 놀라 핸드폰을 떨어뜨린다.
장례식장에서 봤던 최반장의 노모다.

유족 너 땀에 우리 아들이 죽었어. 너 땀에 내 아들이 죽었다고..
 니네 남편 시신 건지자고 멀쩡히 살아있던 내 아들이 죽었다고!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한 세현. 푹푹.. 계란물이 흘러내린다.

세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거듭 고개를 숙이는 세현.
식당 안 사람들.. 급작스런 상황에 어찌할 줄 모르고..
다리 힘이 풀린 듯.. 털썩, 주저앉는 노모.

유족 (오열..) 진작 그만 됐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제발 그만 좀 하라고..

S#65. 구조본부. 컨테이너 휴게실 안 + 밖. 낮

헝클어진 머리. 뺨이 빠진 얼굴로 멍하니 앉아있는 세현.
똑, 똑.. 노크소리가 들리더니.. 남자들이 우르르 들어온다.
정부라고가 박힌 파일을 들은 것이.. 정부 관료들이다.
무슨 일인가 돌아보는 세현.
공무원들이 들어서고 그들 뒤로 문이 닫힌다. 쿵!

문 밖엔 보초를 서듯, 남자 하나가 지키고 있다.
잠시 후, 컨테이너에선 ‘나가세웁!’ 찢어지는 듯한 세현의 목소리가 새어나온다.
보초를 서던 남자, 못 들은 척.. 먼 산을 본다.

저 멀리 상황실 앞에선, 이 상황을 모르는 대경이 쪼그려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다.

S#66. 구조본부. 컨테이너 휴게실. 낮

바닥에 내팽개쳐진 서류들.
남자들 사이에 둘러싸인 가운데..
들썩이는 세현의 어깨.. 호흡소리가 거칠다. 흥분된 얼굴.

남자 하나가 떨어진 서류를 차분히 정리하면,
상관으로 보이는 남자에게 건네 진다. 다시 서류를 펴는 상관.
제2터널 공사재개 동의서다.

간부 험드시다는 거 이해합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모두가 다 힘들어집니다.
국민들도 이제 그만하자고 하잖아요. (신문을 제시하며) 65프로가 넘었어요.
다들 너무 지쳤습니다.

세현의 얼굴을 살피는 간부.

간부 계속 고집피우시다가 또 다른 피해자 나오면 그땐 어떡하실 겁니까.

..이제 그만 인정하셔야 합니다.
세현 ..그런데요...
간부 예, 말씀하세요.
세현 만약, ..제 남편 살아있으면 다들 어찌시려구요..? ..미안하지 않으세요?

목목부답... 쳐다만 보는 남자들.

S#67. 터널 안. 정수차. 밤

부르튼 입술에서 하얀 입김이 새어나오고 있다.
뒷좌석에 누워 있는 정수, 온몸이 부들부들 떨린다.
정수 등 뒤로 자신의 몸을 맞대는 탕이.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보지만.. 여전히 떨리는 몸뚱이...

S#68. 구조 현장. 이른 아침

일과가 시작되지 않은 이른 새벽. 텅 빈 구조현장.
택시 한대가 시동을 켜 놓고 정차 중이다.
차가운 대기 속에.. 배기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들.
잠시 후, 천막에서 나온 세현이 택시에 올라탄다.
탁- 닫히는 문.

S#69. 터널 입구. 구조현장. 이른 아침

꼭- 빨간 스위치가 길게 눌러진다. 덜컹덜컹-
터널 속, 암석들을 밖으로 실어 나르던 컨베이어벨트가 스프록- 멈춘다.
그동안 시끄럽게 귀를 자극하던 기계음도 모두 사라진다.

S#70. 방송국. 라디오녹음실. 낮

라디오 녹음실 안에 방송을 준비하던 디제이, 부스 밖 누군가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S#71. 터널 안. 정수차. 낮

띠띠띠.. 또다시 정오다.

세현 이런 말 하는 거.. 너무 무서운데... 혹시 오빠가 모르고.. 계속 기다릴까 봐..
(울컥) 오지도 않는 우리.. 계속 기다리고 있을 까 봐.. ..오빠, 미안해...

눈물이 흐르는 세현..

세현 ..오빠 혹시 살아있어?

반사적으로 끄덕이는 정수의 고갯짓.

세현 밖에선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고 생각해. 오빠 죽었대.
..나도 모르겠어. 다들 그렇다니까, 정말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이정수 ...

말을 못 잇는 정수.

세현 (홀쩍) 미안해, 오빠. 혼자 그렇게 뒤서. 미안해...

이정수 아.. 안 되는데...

세현 (홀쩍) 근데 오빠 지금 이거 들고 있으면.. 어떡하지... 미안해.. 미안해..
(목소리가 다급해진다) 오빠, 정수씨.. 정말.. 미안해..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세현의 목소리. 마치 방송사고 같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잠시 후, 클래식음악이 이어진다.

이정수 ...나 아직.. 살아 있는데.....

...실낱같은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

정수, 무슨 생각에 선지 핸드폰 배터리를 꺼낸다.

떨려서 인지 계속해서 떨어트리는 정수.

배터리를 꺼내선, 돌로 두드리다가 이빨로 물어본다.

웁퉁, 이빨자국이 찍히는 배터리.

계속해서 씹어대더니 다시 핸드폰에 넣는 정수.

전원을 켜보지만.. 그래도 안 켜진다.

이정수 아아...

휴대폰이 바닥으로 나뒹군다.

...떨리는 정수.....

이제 현실을 받아 들어야만 하나...

하아- 마지막 열은 신음이 나오고는.. 고요하다.

모든 걸 체념한 듯... 가만히 앉아있는 정수..

가끔씩 눈만 깜빡일 뿐.. 미동도 않고 있다.
조용히 찾아드는 어둠 속 터널 안...
겁먹은 탱이가 한쪽 구석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다.
정수가 눈길을 주자... 탱이, 정수 품사이로 파고든다.
부르르... 탱이의 몸이 여전히 떨린다.

S#73. 방송국. 복도. 낮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고 나온 세현.
좁고 긴 어두운 복도를 홀로 걸어간다.
이미 부은 세현의 눈에선...
애써 참아보지만 어쩔 수 없는 눈물이 또 새어 나온다.

S#74. 구조본부 상황실. 낮

뉴스화면 하단에 ‘구조 중단, 제2터널 공사 재개’ 소식이 나온다.
낙담하는 대원들.
대정, 밖으로 나간다.

S#75. 터널 안. 정수차. 낮

간간이 떨리는 탱이의 몸뚱이..
모든 것이 멈춰버린 정수.
정수를 올려다보는 탱이.
가만히 바라보던 정수.

이정수 ..그래..

정수.. 후레쉬를 들고 나오다 휘청... 하지만 다시 좁다란 굴 안으로 향한다.

S#76. 터널 입구. 낮

터널 안에서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 철수하는 인원들.
무거운 공기에 짓눌린 사람들, 어느 누구도 입을 열지 않는다.

S#77. 하도산 중턱. 시추현장. 낮

시추구멍 앞에서 내려갈 준비를 하는 대경과 이를 말리는 시추장.

시추장 이거 박아 넣은 지 오래돼서 강관이 틀어졌거나 균열 생겼을 수도
있어요. 위험해요. 정말 안 됩니다, 대장님.

개의치 않고 장비를 착용하는 대경, 탐지장비를 확인한다.

시추장 장비 내려서 다 확인해 봤잖아요. 굳이 안 이러셔도 되잖습니까.
김대경 ..내가 기다리라고 했는데, ..이렇게 가버리면 너무 비겁하잖아.
 내가 가서 살아있던 아니던 마지막으로 확인해보고 올게. 내려줘.
시추장

S#78. 하도산 중턱. 시추현장. 낮

기이잉- 대경을 태운 캡슐이 깜깜한 구멍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시추장 통신 계속 유지하시고 이상 징후 보이면 바로 올립니다.

오케이 신호를 보내고 깊은 땅 속으로 내려가는 대경의 캡슐.
심연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 멀어진다.

S#79. 하도산 땅속. 구조 캡슐 안. 낮

깜깜한 강관 속 캡슐.
강관 이음을 지날 때마다 덜컹거린다.
이음새들이 조금씩 어긋나 있다.
기기직- 쇠 갈리는 소리가 자극적으로 울리는 캡슐 안.
대경, 흔들릴 때마다 움찔거린다.

시추장(무전) 괜찮으세요?
김대경 오케이, 오케이. 아주 좋아.

하지만 얼굴에 식은땀이 가득하다.

시추장(무전) 곧 도착합니다. 잠시 진동 있을지도 모르니까 손잡이 꼭 잡으세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순간 쿵!

김대경 (휘청) 일찍도 얘기한다.

미단이창과 같은 보호덮개를 여는 대경, 눈앞은 무너진 구조물로 가득하다.
매몰자음향탐지기를 설치하는 대경.
불 마이크 모양의 음향집음기를 암석 틈 사이로 밀어 넣고 있다.
조금이라도 더 깊게 넣고는 헤드폰을 낀 채
심장박동표시기 같이 생긴 음파 수신 장비에 집중하는 대경.
..아무런 반응이 없다.

S#80. 터널 안. 정수차. 낮

구멍 안

트득- 어지럽게 널린 철선에 걸린 정수의 재킷이 전진을 방해하고 있다.
당겨 봐도 잘 빠지지 않자 그냥 걸옷을 벗어버리는 정수.
좁은 공간에서, 게다가 지친 몸으론 옷 하나 벗는 것조차 쉽지 만은 않다.
다시 날카로운 암석 위를 기어가는 정수..
여기저기가 뜯겨나간 손톱.. 이곳을 기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하아... 하아...
막힌 길에 다다른 정수. 이제 무너지건 말건 앞을 막고 있는 돌덩이를 거세게 밀어댄다.
돌맹이로 때려가며 밀어대자.. 움직이지 않을 것 같던 돌덩이가...
조금씩, 조금씩.. 비껴 나기 시작한다. 손가락 하나 들어갈 틈이 생기고..
정수, 억지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 돌 너머 작은 틈들이 이어지는 것 같다.

S#81. 하도산 중턱. 시추현장. 낮

초조해하는 시추장, 밑에서 올라오는 신호만 기다리고 있는데...

시추간부 어이 시추장, 지금 캡슐 내린 거야? 누구 밑에 들어갔어?!

철수상황을 살피러 온 시추간부가 위쪽에서 소리를 지른다.
흠칫 쳐다보는 시추장.

시추장 아니 그게.. 뭘 좀 확인할 게 있어서...

시추간부 하아, 이 사람들이.. 지금 캡슐 내리면 어떡해!

시추장 아, 예. 금방 끝내겠습니다.

시추간부 당장 빼. ..빨리! 바로 밭파 들어간다 말야.

시추장이 머뭇거리자 짜증 난 표정으로 다가오는 시추간부.

구조캡슐 안

치직- 무전이 울린다.

신경을 곤두세우며 진동음을 찾고 있던 대경, 인상을 찌푸린다.

시추장(무전) 대장님.

김대경 시추장, 지금 무전 치면 안돼요. 잡음 들어와.

시추장(무전) 저기,, 올라오셔야 될 거 같은데요.

김대경 안 돼. 조금만 더...

시추장(무전)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올려야 돼요.

‘뒹하는 거야! 빨리 올려’ 간부의 고함소리도 섞어 들어온다.

김대경 오 분만. 오 분만..

시추장(무전) 죄송합니다. 덮개 닫으세요. 지금 바로 올리겠습니다.

김대경 야, 시추장! 시추장!

무전이 끝나자마자 덜컥거리는 캡슐, 보호막이 열린 채 상승하기 시작한다.

돌 틈 사이 붐 대를 쥐고 있던 대경의 팔이 캡슐과 암석 사이에 끼려는 순간,

가까스로 팔을 빼는 대경.

우지직.. 떨어 나오던 짐승기가 부러져 돌 틈 사이로 떨어진다.

아쉬움에 장탄식을 내뿜는 대경., 서서히 지상으로 오르고 있다.

S#82. 터널 입구. 낮

철수하는 사람들 숫자를 확인하던 공사주임.

공사주임 (무전기에) 다 나왔습니다.

멀리서 사이렌이 울리고..

제2터널 공사현장에서 발파작업을 시작한다.

쿵! 메아리치는 1차 폭발음.

S#83. 터널 안. 정수차. 낮

쿵! 멀리 진동음이 느껴지고..

곧이어 바닥에 고인 물에 동심원이 생긴다.

물을 먹던 탱이, 화들짝 놀라.. ..구멍을 향해 소리 지른다. 킁킁..

처음 질러보는 소리다.

굴 안. 점점 거세지는 진동.
돌덩이를 밀던 정수의 손과 어깨로 무거운 낙석들이 우르르- 떨어진다.
크윽! 비명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정수의 굴이 무너지려 한다.
아.. 제발.. 깊은 주름 박힌 얼굴에 묻어나는 안타까움.....

컹컹.. 미친 듯이 짓어대던 탱이, 차 안으로 뛰어 들어간다.
가까스로 밖으로 나온 정수도 낙석들을 피해,. 차 안으로 간신히 들어간다.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떨어지고.. 정수가 쌓았던 돌탑들도 무너지고 있다.
그동안 정수를 지켜주었던 공간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정수 (숨을 헐떡이며) **하아.. 바로 시작하네.. 인정머리 없는 새끼들..**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미나의 소지품과 ‘해피버스데이’ 가 새겨진 케이크 장식물을 급히 옷 안에 챙겨 넣는 정수.
그 순간, 빵! 커다란 소음이 들린다. 암석 무게로 인해 뒷바퀴가 터졌다.
놀란 정수, 기울어진 차체가 점점 내려앉자.. 환풍기 안으로 몸을 피하는데...
따라오지 않고 뒷좌석에 그대로 있는 탱이.

이정수 (손을 뺨으며) **야, 야.. 이리와, 이리와.**

하지만 잔뜩 겁먹은 탱이가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그사이 선루프를 뚫고 내려온 콘크리트더미가 차 안으로 쏟아지기 직전이다.
다급한 정수, 탱이를 향해 손을 뻗쳐보는데...
쿵! 둘 사이로 떨어지는 콘크리트더미들.
탱이 홀로 찌그러지는 차 안에 남는 가 싶더니...
쑈- 빈틈사이로 정수의 팔이 들어와, 탱이의 목덜미를 낚아챈다.
주옥- 늘어지는 탱이 등가죽.

S#84. 터널 안. 환풍기. 낮

환풍기 안으로 피신한 정수와 탱이.
짓누르는 돌들의 무게에... 기기직... 우그러들기 시작한다.
겹에 질려있던 탱이가 미나차로 쏜살같이 뛰어 나간다.

이정수 **야, 어디 가! 야! 일루 와!**

움직일 힘도 없이... 그저 탱이만 부르는데...

정수, 무슨 생각에 선지 갑자기 몸을 일으킨다.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듯 뒤틀리는 환풍기 안.
무너지는 돌덩이들 사이를 헤치며 미나차로 전진하기 시작하는 정수.

S#85. 하도산 중턱. 시추현장. 낮.

시추구멍이 닫히고 있다.
허망한 얼굴로 시커먼 구멍을 쳐다보던 대경.
그 사이 대경이 사용했던 매몰자음향탐지장비를 회수해가는 사람들.
망가진 장비를 보고 언짢은 얼굴들이다.

장비책임자 이게 얼마 짜린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 몇 대 없는 거예요.
김대경 (순간 치밀어 오르다 다시 누른다) 아이 씨.. 그만 좀 합시다.

대경의 기세에 움찔하는 관계자들, 구시렁거리며 돌아서는데...

김대경 잠시 만요!
장비책임자 (움찔) 예?

놀란 눈으로 대경이 다가가자 당황한 관계자들, 뒤로 물러서는데..
그들 손에 들린 음파수신기에서... 파동이 생기고 있다.
마치 심장박동과도 같이 일정 간격으로 요동치는 그래프.
‘뭉지..?’ 의아해하는 관계자들.. 그 순간 또다시 요동친다.
관계자를 밀치고 서둘러 증폭기 헤드폰을 끼는 대경.

김대경 (다급히) 모두 정지!

하도산 일대에 울려 퍼지는 대경의 고함.
무슨 소리가 의아해하는 사람들.
현장이 고요해지고.. 헤드폰에 기울이는 대경.
..여전히 고요하다.
영문을 모른 채 동작을 멈추었던 사람들. 별일 아니라는 생각에 다시 일들을 시작하려는데..

김대경 (나지막이) 들린다.

닫혔던 구멍이 다시 열리면.. 기다란 어둠 속으로 빛이 스며든다.
구멍을 향해 귀를 기울이는 대경과 시추장.
잠시 후.. 머리카락이 쭈뼛거리는 두 사람.
깊은 땅속에서 소리가 올라오고 있다. 빠앙- ...경적 소리다!
정수의 심장고동과 같은 경적이 강관파이프를 통해 새어나오고 있다.

터널 안 미나차

미나차에 오른 정수. 일전에 암석을 치운 덕에 드러난 경적을 누르고 있다.
누가 듣거나 할까... 하지만 계속해서 눌러대는 정수.. 점점 지쳐간다.
빵.. ..빵 ..빵!
옆에 있던 탱이도 짚어댄다. 쾅, 쾅, 쾅..

다시 하도산 정상

대경, 무전기를 낚아채고는 다급히 소리친다.

김대경 사람 있습니다! 발파 중지! 살아있다구요!

마치 진공상태처럼 소리가 들리지 않는 가운데...
고함을 질러대는 대경의 간절한 모습만이 보인다.

구조상황실

무전기 앞에서 생존 소식을 들은 대원들, 크게 한 방 얻어맞은 얼굴들이다.

제2터널 공사장

2차 발파가 준비되고 있다.
터널 깊숙이 매설된 폭약으로부터 이어진 도화선이 스위치에 감긴다.
저 멀리 인부 하나가 멈추라는 듯, 무전기를 들고 달려오는 사이,
..스위치가 눌러진다. 쿵!

하도산 일대에 폭발음이 충격파처럼 퍼져나간다.

터널 안 미나차

경적을 눌러대던 정수 위로...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돌들.
퍽, 꺼져버리는 후레쉬. 암흑..

하도산 시추현장.

경적음이 멈췄다. 강아지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S#86. 터널 입구. 밤

핑! 라이트가 일제히 들어온다.
야구장 조명처럼 터널 입구 일대가 환하게 밝혀진다.
기계가 다시 돌아가자, 진공이었던 이곳에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S#87. 터널 안. 정수차 + 미나차. 낮

35일째 되는 날.

고요한 터널 안.. 반쯤 무너져 내린 굴 안.

스르륵.. 한쪽 벽에서 흙이 떨어지더니...

..그 틈으로 조용히 빛이 들어온다.

조금씩, 조금씩 구멍이 커지고..

하나, 둘.. 좁은 공간으로 진입하는 사람들..

이리저리 정수를 찾아대는 후레쉬 불빛.

차 안에도, 환풍구 안에도 없다.

정수를 찾는 고함소리들... 환풍기 안에 찌렁찌렁 울려 퍼지지만 아무 반응이 없다.

미나차 안에 불빛이 다다르자.. 멈춰 서는 사람들.

저기.. 암석과 흙더미에 묻힌 정수가 보인다.

짙은 회색 가루가 뒤덮은 얼굴에 비춰지는 불빛.. 하지만 전혀 반응이 없다.

S#88. 터널 입구. 낮

정적.. 초조함... 터널 입구에 몰려 있는 많은 사람들.

생사여부만 애타게 기다리며 바라보고 있다.

어두운 터널 안.

저벅저벅, 울림 때문인지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발자국 소리.

구조대원들이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다.

그들의 무거운 발걸음.

입구에 다다르자 서서히 밝은 빛이 쏟아져 들어온다.

온통 노랗게 보이는 터널 밖 세상.

노랗게 일렁이는 사람과 사물들.. 비현실적인 느낌이다.

허공을 유영하듯 세상으로 다가가는 노란 시선.

터널 밖 세상이 가까이 오자,

온통 노랗게 비치던 바깥 풍경이 출렁이듯 요동치더니..

현실의 색과 섞이기 시작한다.

‘비켜요, 비켜.’ 서서히 고함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다급한 걸음걸이에 링거병 안에 노란 액체가 요동친다. (링거를 통한 바깥 풍경)

링거에서 나온 가느다란 호스가 들것에 실린 정수 팔뚝에 꽂혀있다.

얼굴에 검은 안대가 씌워진 정수.

살아있음을 확인한 사람들 사이로 환호가 쏟아진다.

뒤를 이어 나오는 또 하나의 들것.

앞발에 링거를 꽂은 채 누워있는 탕이다.
평,평,평.. 어마어마한 카메라 플래쉬가 일제히 터진다.

S#89. 거리. 낮

세상에 나온 한 남자를 맞이하는 사람들..
..환호하고... ..눈물을 흘리고... 또 ...숙연하다...

S#90. 터널 남쪽 입구. 낮

기자들과 구경꾼들, 대원들의 고함소리로 뒤엉킨 소란 속에서
안대를 한 채, 힘들고 열은 몸짓으로 누군가를 찾는 정수.. 세현을 찾고 있다.
하지만 몰려드는 인파에 세현이 뒤로 밀려나자..
막내대원이 사람들 사이를 마구 파고든다.

막내대원 (거칠게 밀치며)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사람들 사이를 힘겹게 헤치며 세현을 앞으로 데리고 나간다.
드디어 정수 앞에 선 세현..
양상해진 정수의 모습에 눈물이 왈칵 쏟아진다.
정수도 세현의 존재가 느껴진다.
정수, 쇠약해진 손을 내밀면... 지친 정수 손을 잡는 세현..
보이진 않지만 목이 메는 정수, 입술이 움찔거리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세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수, 괜찮다는 듯.. 세현의 손을 감싼다.
둘의 상봉에 플래쉬가 요란하게 터지고 있다.

길을 재촉하는 의료진들. 짧은 만남을 뒤로 하고 다시 헬기로 향하는 정수.
대경이 앞에서 열심히 길을 트고 있다.

김대경 **비켜요! 아저씨! 거 앞에 나오시라고!**

흔들거리는 들것 위에서.. 지난 한 달 동안 힘이 되어주었던 목소리를 알아차리는 정수.
헬기 앞에 다다른 대경도 정수의 표정을 읽은 듯,

김대경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퇴원하시면 소주 한 잔 살게요.**

헬기요원에게 인계하던 대경, 헬기 프로펠러가 아직 움직이지 않자,

김대경 (손짓하며) 날개 안 돌려?

헬기요원 ..잠시 기다리라는데요.

김대경 누가? 왜?

옆에 있던 장관 보좌관이 다가와, 나지막이..

보좌관 장관님이 바로 앞까지 오셨는데.. 조금만 있다가 같이 이동하시죠.

김대경 (어이없다) 제정신이세요?

보좌관 본부 하고는 얘기됐거든요.. 저기 도착하셨습니다.

도착하는 장관차. 장관이 에스코트받으며 걸어오고 있다.

대경, 어이없어하는데... 툭툭.. 대경의 손을 건드리는 정수..

정수의 입술이 움찔움찔.. 뭐라 말하는 듯하다.

얼른 귀를 갖다 대는 대경..

플레쉬가 미친 듯이 터지는 가운데..

정수의 메마른 입술에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당황하는 대경.

조기자 지금 이정수씨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세상을 향한 첫 말씀이신데 뭐라고 하셨나요?

머뭇머뭇, 난감한 표정으로 조그마하게 말을 하는 대경.

기자들, 안 들린다고 난리다.

조기자 좀 크게 말해주세요. 뭐라고요?

망설이던 대경, 결국...

김대경 아.. ‘다 꺼져, 이 개-새끼들아!’ ..라고 이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순, 싸해지는 생방송 현장. 다들 조용~

힘없이 올라가는 정수의 입술 끝. 지금 웃고 있는 듯하다.

다가오던 장관일행, 슬그머니 뒤돌아간다.

그의 입모양이 ‘누구? 나? ..왜?’ 이려고 있다.

전국방송에 송출된 대경의 우렁찬 욕설에 난감해하는 앵커와 기자들.

TV화면엔 곧바로 자막이 뜬다.

‘고르지 못한 방송진행에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연주가 끝나고 디제이의 음성이 들린다.

디제이(소리) 방금 들으신 곡은..

이정수 쇼스타코비치.

디제이(소리) 쇼스타코비치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이었습니다.

세현 오호!

이정수 공부 좀 했다. 좀만 더 있었으면 교향곡 하나 만들어왔을 텐데...

짜려보는 세현.

디제이(소리) 오늘은 이정수씨가 퇴원하셔서 드디어 집에 가시는 날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렵게, 그리고 오랜만에 집으로 들어가실 텐데요. 그동안 못 드셨던 것들, 하고 싶었던 것들, 모두 다 이루세요. 수진양, 오늘 일찍 자야 된다. 이정수씨, 힘내시라고 썬 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힘센 음악이 흐른다.

이정수 이 사람 이상해.. 이거 심의 안 걸리나?

세현 (웃으며) 엄마가 갈비 해놨다는데, 괜찮아?

이정수 갈비.. 좋지.

정수, 절로 미소 짓는데..

‘전방에 터널입니다. 안전운전하세요.’ 내비게이션이 알리자, 순간 짧은 불안이 파고든다.

세현, 정수 손을 잡는다.

이정수 (미소) 괜찮아.

정수, 애써 태연하려 하나 긴장되는 모습을 지울 수 없다.

터널로 진입하는 정수차.

터널 안. 웅- 돌아가는 환풍기 날개.

빠르게 스쳐가는 터널 불빛이 정수 얼굴에 훅훅- 떨어진다.

잠시 후, 밝은 햇빛이 들어와 붉은 빛을 밀어낸다.

긴 터널을 빠져나오는 정수차.

계속해서 정수 얼굴을 비추던 카메라.. 차량 속도에 앞서 점차 상승하면...

터널을 빠져 나와, 눈 쌓인 하얀 계곡을 가로지르는 높다란 다리 위를 달리는 정수차...

높고 가느다란 교각 사이로.. 바람이 분다.

...the end.